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東京市에 戒嚴令! 緊急勅令으로 布告
二十七日附로써 即日實現

【東京電話電通】東京의 治安을 維持하기爲하야 政府는 戒嚴令의 一部를 緊急勅令으로써 公布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七日午前一時三十分 上奏御裁可를 經由하야 內閣은 二十七日附 官報號外로써 左와如히 布告하야 即日實施하엿다

―勅令―

朕 玆에 緊急必要라고 認하고 樞密顧問의 諮詢을 經하야 帝國憲法第八條第一項에 依하야 一定한 地域에 戒嚴令中必要한 規定을 適用하는 件을 裁可하고 此를 公布케함

御名御璽

昭和十一年二月二十七日 國務大臣副署

勅令第十八號

一定한 地域에限하야 따로 勅令에定한바에依하야 戒嚴令中必要한 規定을 適用함을得함

附則 本令은公布日부터 此를施行함

朕 昭和十一年勅令第十八號의施行에關한件을 裁可하고 此를公布케함

御名御璽

昭和十一年二月二十七日

內閣總理大臣臨時代理 內務大臣 後藤 文夫

陸軍大臣 川島 義之

勅令第十九號

昭和十一年勅令第十八號에依하야 左의區域에 戒嚴令第九條及第十四條의規定을 適用함

東京市

附則 本令은 公布日부터 此를施行함

―勅令―

朕 戒嚴司令部令을裁可하야 玆에此를 公布케함

御名御璽

昭和十一年二月二十七日

內閣總理大臣臨時代理 內務大臣 後藤 文夫

陸軍大臣 川島 義之

勅令第二十號

戒嚴司令部令

第一條 戒嚴司令官은 陸軍大將又는中將으로써 이에 親補하고 天皇께 直隷하야 東京市의 警備에 任함 戒嚴司令官은 其任務達成을 爲하야 別項의 區域內에 在한 陸軍軍隊를 指揮함

第二條 戒嚴司令官은 軍政 及人事에 關하여는 陸軍大臣의 區處를 受함

第三條 戒嚴司令部에 左의 職員을 置함

參謀長 參謀 副官 管理部長 經理部長 軍醫部長 部付 部員 憲兵長 准士官 下士官 判任文官

第四條 參謀長은 戒嚴司令官을 輔佐하야 事務整調의 責에 任함

第五條 參謀는 參謀長의 指揮를바더 各擔任事務를 掌함

第六條 副官은 參謀長의 指揮를 受하야 庶務를 掌함

第七條 管理部長, 經理部長, 軍醫部長은 戒嚴司令官의 命을 受하야 各擔任事務를 處理함

第八條 部付, 部員, 憲兵長은 各上官의 命을 受하야 事務를 掌함

第九條 准士官, 下士官, 判任文官은 各上官의 命을 受하야 事務에 從事함

附則 本令은 公布日부터 此를 施行함

當分間 東京市內에잇서 警備司令官의 職務는 此를停止함

高橋藏相도逝去
天皇陛下侍從御差遣

【東京電話電通】負傷한 高橋藏相은 應急加療도보람이업시 얼마지나지못하야 마츰내逝去하엿다

【東京電話電通】天皇陛下께압서는 二十七日午前八時五分 赤坂表町高橋邸에 德大寺侍從을 御差遣하시와 遺族에 對하야 御懇篤한 御慰問을 下賜하압시엿다

過般 에티오피아에 出動하얏다가 伊軍에게 爆擊當한 瑞典赤十字病院車의 殘景

戒嚴令第九條와 第十四條의規定

【東京電話電通】戒嚴令第九條及第十四條의規定은 左와如하다

第九條 臨戰地境內에 잇서서는 地方行政事務及司法事務의軍事에 關係잇는 事件에限하야 其地의 司令官에 管掌의權을委任함 故로 地方官 地方裁判官及 檢察官은 其戒嚴의 布告又는 宣告이잇슬時는 速히該司令官에게 其指揮를請할것

第十四條 戒嚴地境內에잇서서는 司令官은 左에列擧한 諸權을 執行할 權限이 有함 但執行으로부터 生하는 損害는 要償함을不得함

第一 集會又는 新聞雜誌 公告等이 時勢에 妨害잇다고認하는것을 停止할것

第二、軍需에供할 民有의諸物件을 調査하고 또時期에 依하야 其輸出을 禁止할것

第三、銃砲 彈藥 兵器 其他危險한 諸物件을 所有한者는 때로는此를 檢査하고 時期에依해서는 押收함

第四、郵信電報를 開緘하고 出入船舶及 諸物件을 檢査하고또 陸海通路를 停止할것

第五、戰狀으로 不得已한 境遇에잇서 人民의 動産不動産을 破壞毁燒할것

第六、合圍地境內에잇서서는 晝夜의 別이업시 人民의 家屋 建造物 船舶中에 드러가 檢察할것

第七、合圍地境內에 寄宿하는者가잇슬時는 時期에 依하야其 地를 退去케할것

朝滿間의三戰役
―明淸間에끼운朝鮮―
(六) 文一平

明淸사이에 끼운朝鮮이 가장 거북하것은 戰後外交이다 淸과 講和하려면 明이 怒하고 明과 親近하려면 淸이疑하니 兩國의悲哀가 여기잇다 그러나 國際的으로 受虐者의 境遇에 노여잇는 朝鮮은 이것이 처음맛보는 苦味가 아니다 前으로는 이淸의遠祖인 넷날金國이 일어날때 遼金宋사이에 끼운高麗와 이明이 맨처음 이러날때 元明사이에 끼운 高麗와 後로는 近代에 와서 日本이 勃興할때 日淸兩者사이에 끼운朝鮮이 또한 그러치 안흔것이 아니다 다만 遼金宋交代期의 高麗는 盛時이니만큼 無事히 難關을 지내엿슬뿐이다 그러다가 元明交代期에 이르러는 마침내 麗朝의 滅亡을 招來하지 못한것이 아니냐 그리고 日淸兩者사이의 朝鮮은 누구나 다아는 事實이라니 말할것도 업는바다 그러나 이明淸交代期의 朝鮮은 비록 麗末이나 韓末과는 그性質이 다르지만 王位廢立의變動이잇게되것은 對內의關係만가지고는 滿足히 說明을할수업고 역시 이國際間에 微妙한作用이原因한것을 이처서는 아니 되겟다 이로부터 明淸間의 交涉과 의로因하야 直接間接으로 內政上에 미친影響을 대강 그러보기로하자。

世間에서 오늘날까지 光海廢位로서 黨爭의 亂機에 몰리는것이 通說이다 과연 光海主는 黨爭의 犧牲이 되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吾人에게 말만하라면 黨爭을 준것은 參酌問題로해서 君臣사이에 생긴 反目이 아니냐 吾人은 이君臣의 不和한틈을 타서 일어낫고 또 어대까지든지 國際의 關係를 利用하야 內事의要具로삼엇다 우리는 이點에 對하야 맛당이細心注意하여야 하겟다 簡單히 말하면 光海가 아무리 殺兄弟廢母后의 失德이 잇다라도 參酌問題가 업섯스면 吾人이 可乘할 機會가업섯슬것이며 따라 光海의 廢位도 되지안햇슬것이다 그럼으로 光海廢位는 明淸交代의 國際關係를 떠나서는 說明하기 어렵다 자는범 코를찌른 光海의朝鮮은 己未深河戰後 가장兵禍되는것은 무엇보다 後金의役事이오 또하나는 明廷의再次請兵이다 그러나光海主는 이事을 다 謀避하려고 努力하엿다 當時後金은 戰勝의餘威를 라서 北關의女眞人集落을 마자 아올으고 다시遼左를 맥할새 開原과鐵嶺을 차례로 견우고 遼陽과瀋陽을모조리 차지하야滿洲를完全히 統合한것이이戰役으로부터 數年동안의일이다 淸太祖(奴兒哈赤)는 遼東의 攻略에 이가리 全力을 傾注하게된 關係上 朝鮮에對해서는 隱忍自重하야 刀劍의대신에 玉帛을 가저 和親을 朝鮮에 求하니 대처 戰勝國으로서 戰敗國에 對하야 먼저 國書를 보내는것은 類例가 드문 일이것만 朝鮮에서는 도리어 答書를 보내지 아니하고 此日彼日延拖하다가 내종에는 平安監司朴燁의 名義로 回答하엿다 그러나 그內容은 보明人의 口吻을 그대로 본따서 彼人의價怒를 激發시킬 말뿐이엿다 我에게 조금이나 自衛의力이 업시 한갓强硬한論으로만 나가는것은 스스로 禍를 재촉함이라 光海主 께서는 戰前에도 守境說을 主張하엿거니와 戰後에도 和好說을把持하야 아모조록 大勢에 順應하려하엿스나 盲人만사는 곳에서는 눈뜬사람이 도리어 숭자피는 셈으로 名分論이 風靡하는 이때 朝鮮에는 實際利害論이 蔑視를 밧게될도 當然한일이다 할수업는 일이다 光海主가 對明淸關係에 잇서서 群臣에게 만히 誤解를 밧게된것도 이때문이다 아무리 말을 하지안흐려고하되 國家의存亡에 關한 重大問題임을 알면서야어찌 緘口結舌하고 이스라 하고 光海께서 연번이나 長歎太息하신일도 잇섯거니와 壬辰亂後를 이여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합것이 부孔子猶의 艱局을 收拾하기 어려운데다가 또이러케 複雜한淸明間의 軌轢에 슬러들게 되어슴이랴 光海의 廢位는 엇지 失德이 업드라도 動搖되는 內部事情과 險惡한 外部影響으로만도 實現되지못함것은 아니다

話題解說
戒嚴令

二十六日 軍令으로 東京市에 戒嚴을 나리엇다 한은 別項報道와갓거니와 戒嚴令은 엇더한法令인가。戒嚴令은 全文十六條로서 明治十五年八月五日太政官布告第三十六號로 發布되것인데 그第一條에 依하면 『戒嚴令은 戰時又는 事變에際하야 兵備로서 全國又는 一地方을 警戒하는 法』이라는것을보아 이法令의 目的이 어대잇는것을 알수잇다。그런데 이번事變은 東京에限한局部的인것으로 그地境을限定하야 東京市로 定한것이다。

×

그러면 戒嚴令이나리면 엇더케 되는가。이번에는 同令第九條와第十四條를 適用한다하엿스니 臨戰地境內에서는 地方行政事務나 司法事務中에도 軍事에關係된事件은 司令官의 管掌이 되게될것이오 따라서 地方官 地方裁判官 檢察官은 戒嚴司令官의 指揮를 받게되는 것이다。

×

第十四條에 依하면 司令官은 戒嚴地內에서 集會나 新聞雜誌 廣告等의 時勢에 妨害되는것을 停止할수가잇고 軍需에 供할 民有의 諸物品을 調査하고 또는時機에 依하야는 그輸出을 禁止할수도 잇고 銃砲 彈藥 兵器 其他危險物을 檢査 또는押收하는 것은 勿論이오 郵信電報를 開緘하고 出入船舶과 諸物品을 檢査하며 陸海通路를 停止할수도잇고 戰狀에 依하야는 人民의 動産不動産을 破壞燒燬할수 잇스며 合圍地境內에서는 어느때든지 民家와 其他建物船舶에 出入하며 檢察할수 잇고 地境內에 寄宿하는者에게 退去를 命할수도 잇다。이와가티 戒嚴司令官의 權限은 廣大할뿐아니라 이權限執行에 依하야 生한損害는 賠償을不得한다 그럼으로 戒嚴令은 長期에亘하는일이 別로업고 最近에는 大正十二年關東大震災때에 發布한일이잇다

相澤公判無期延期

【東京電話電通】二十七日에 開廷할豫定이든 相澤中佐의 續行公判은 無期延期되엿다

各軍事參議官 偕行社서重要會議

【東京電話電通】東久邇宮 朝香宮兩殿下를 爲始하야 川島陸相及各軍事參議官은 二十七日午前十時三十分 九段偕行社에集合하야 重要會議를 開催하고 正午散會하엿다

後繼內閣豫想

【東京電話同盟】後繼內閣에對하야는 目下여러가지 觀測이잇는데

一、政府一部의 情報로는 近衛內閣(但 荒木元陸相의 支持를必要로함)

一、調査局方面에서는 眞崎, 平沼聯立內閣이나 또는 荒木, 近衛聯立內閣

一、司法省方面에서는 平沼內閣을 確信하고

一、一部政界의 觀測은 山本英輔內閣說을 有力視하고잇다

警保局首腦重要協議

【東京電話同盟】內務省警保局은 二十七日 午前九時半부터 本省警保局長室에 唐澤警保局長以下 川口保安課長以下 警保局首腦部 全員을 參集하고 各方面의 情報를 蒐集하야 警備에 萬全을期하는 同時에 東京을 中心으로 全國治安維持를 確保하기爲하야 重要協議를 逐하엿다 그리고 東京을 爲始하야 全國은 모도 靜穩에 歸하야 民心의 動搖는 업는 模樣이다

米國務次官弔意表示

【華盛頓二十六日發電通】필립스 國務次官은 二十六日 記者團에게 岡田首相 其他內府等의 逝去는 遺憾千萬이라고 表明하엿다

川島陸相調停으로 行動隊와妥協成立?
原隊로撤回키로햇다는說內務省에到達
宮內省에선閣議續行

【東京電話】後藤臨時首相代理以下閣僚는 二十七日午前一時半頃부터 二時頃까지 宮內省에서 지내고 二十七日 午前八時 同所에서 閣議를열고 前日에 繼續하야 重要協議를 逐하엿다

【東京電話】川島陸相의調停으로 二十七日午前二時 行動隊와의間에 妥協이成立되여 行動隊는原隊로 撤回하기로 되엿다는說이 內務省에 達하엿다

戒嚴令下의東京

【東京電話電通】昨日은 東京市民도 一時衝動을 바든듯하엿스나 그後 警備司令部 內務省의 『人心은平穩하다』라는布告로 一時動搖되엿든 市民도 即時 鎭靜되여 昨夜는 東京全市를 通하야 何等異常이업섯고 今朝도 平常과갓다 戒嚴司令部에 當한 九段軍人會館에는 武裝한 衛兵과憲兵이 一團이되여잇스나 市內一帶에는 카-키色의軍人도 보이지안는다 다만 宮城外苑을中心으로한 官衙一帶에는 多少카-키色의軍人도보이나 그것도 極히僅少하야 空氣는 至極平穩하야 特別한衝動을 市民에게 주지안는다 昨夜 銀座通은 閉店한곳도잇스나 今朝는 아침부터 活氣를 띄여 銀座 新宿 淺草를 爲始하야 市內는 普通과變함이 업시 至極平穩하다 要컨대 東京은 戒嚴令이 宣布되기는 하엿스나 極히 平靜狀態를 繼續하고잇다

第四師團布告發表

【大阪電話同盟】二十七日午前一時 第四師團司令部及 大阪府警察部는 阪神地方의 人心의安定을 期하기爲하야 各各誇張한流言에 迷惑지말라는 布告를發表하엿다

昨二十六日 東京에서 發生한 事件은 東京에 局限한 事件으로 阪神地方은 平靜하야 何等憂慮할만한 事態는 업스나 往往間에 자칫하면 誇大한流言에 迷惑될 傾向도 업지안흠으로 戒心輕擧업기를 希望한다

軍의最高方針決定

【東京電話同盟】二二六事件의 善後策에 關하야 昨夜來軍事參議官間에 協議를 거듭하고다시 二十七日午前十時半 九段偕行社에서 軍事參議官會議를 開하야 朝香、東久邇兩宮殿下를 모시고 荒木、阿部、眞崎、林、西、植田各參議官、川島陸相出席으로 善後策에關하야 거듭協議를 行한結果 陸軍側은 大體方針을 決定하얏음으로 植田大將은 一同을代表하야 午後一時四十分 東京驛發列車로 小田原의 閑院參謀總長宮殿下의 御別邸에 伺候하고 軍事參議官會議의 經過를 詳細히 報告하야 御決裁를 仰하얏다 이로서軍의 方針은 決定되모양이다

鈴木侍從長重態

【東京電話同盟】行動隊의 襲擊을맛난 鈴木侍從長은 腹部及頸部에 銃創, 刀創을바더目下麴町某所에서 應急治療를밧고잇는데 重態이다

兼攝町田商相 即時辭表捧呈

【東京電話同盟】町田商相은 大藏大臣의 故障으로 藏相을 兼攝하기로되여 二十七日 午前九時 後藤首相臨時代理侍立下에左와 如히 親任式이 擧行되엿다

商工大臣 正三位勳一等 町田忠治

兼任大藏大臣

【東京電話同盟】內閣發表=町田兼任藏相은 內閣의 總辭職한關係上 親任式直後 大藏大臣으로서의 辭表를 提出하고 後藤臨時首相代理로부터 闕下에 奉呈하엿다

戒嚴司令官 告諭發布

【東京電話同盟至急報】午前八時 戒嚴司令官 香椎中將은 左와如한 告諭를 發表하엿다

◆戒嚴司令部發表

今般 昭和十一年 勅令第十八號及 第十九號(二月二十七日官報公布)로서 東京市의 區域에 戒嚴令中 一部의施行을 命하엿다 이것은 前告諭에示한바와가티 帝都附近 全般의 治安을 維持하는同時에 緊要한物件을 擁護하고 赤系分子等의 妄動을 未然에 防過할目的에서 나온것이다 玆에 本職은 大命을 밧드러 兵力으로써 戒嚴地境內를 警備하고 地方行政事務及 司法事務의軍事關係잇는것을 管掌하려함 帝都內官民은 그趣旨를 잘깨닷고 協力一致하야 길히 對動함사 本職을 信賴하고 戒嚴의 使命을 遂行케하기를 期하라

昭和十一年二月二十七日

戒嚴司令官 香椎浩平

朝鮮軍司令部發表

東京事變에對하야 朝鮮軍司令部에서는 二十七日午前十時半 千葉少佐로하여금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目下混亂하여 判明치 안호나 通報에依하면 一個大隊가 指揮하는 軍隊가 國家機關을 改革하려고 생각하고 今回의事件을 革命이라고 一部에서는 말하고잇스나 그것은 當치안타 上御一人을 밧드는것이어서 外國의 革命과는 趣意가 달으다 이暴動軍에 暴力으로써 對戰하다면 참으로 簡單한일이나 兵卒은 아무것도 몰으고 一部將校의 命을 바더서 擧事한것임으로 軍中央部로서도 아무것도不知中의 赤子를 서로傷하고 십지안흔것과 이點에 中央部도 苦心한다라고 생각한다 何如든 이問題는 萬國無比의國體를 지으려는것임으로 落着될것은 旣定되여잇는 바이다 또한今回의首魁는 安藤大尉이고 다음은 野中大尉、栗原中尉等이다 羅南의大藏大尉가 加入되여잇다고傳하나 本人은 羅南에잇는터이다 小藤軍司令官은 巡視豫定을 變更치안코 豫定대로 三月六日 歸城할 豫定인데 佐枝參謀長은 今後多少狀況을 보아서 出張하기로되여 二十八日의 出發을 延期하엿다

佐枝參謀長談

軍司令部發表―東隊의 暴動事件에 對하야 二十七日 午前十時半 佐枝朝鮮軍參謀長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今回의 暴動事件은 아직全貌가判明되지 안흠으로 判然하기까지는 批判은할수업다 事件의 詳細에對하야 發表할것은 戒嚴司令部에서 發表할줄로 생각한다 陛下의 御宸襟을 煩惱케 하엿은 참으로 恐懼

東京事變에對하야
◇…今井田政務總監談

昨日東京에서 일어난事件의 眞相은 陸軍省其他當局發表와가튼바 其後帝都의 治安은 軍隊, 警察官에依하야 完全히 維持되야 人心은安定되고 交通取引도 平常대로 行하고잇다 又全國各地方도 아모일업시 全혀平靜하다 朝鮮內에서도 事件勃發의報에 接한後 人心의動搖를 이르키는일이 업도록 注意하야 警戒하고잇는바 여기도亦是 全혀何等의事故가업서 極히靜穩하다 이러한때에는 特히誇大한 流言蜚語가 노는것인바 一般은 此等에 惑하지안토록 安心하고 其業에힘쓰기를 希望하는바이다

宇垣總督歸京

【釜山電話電通】宇垣總督은 去二十二日以來 海雲臺溫泉에 滯在中이든바 二十七日 午前八時 釜山驛發 列車로 歸京하엿다

英海軍飛行艇의 日本訪問遂中止

【東京電話同盟】二十七日午前十時四十五分 英國大使館으로부터 海軍省에達한 通報에依하면 英國飛行艇의 日本訪問飛行은 事情에依하야 中止하게되엿다

英外相弔意表明

【倫敦二十六日發同盟】이-든外相은 二十六日午後 英國下院의 質問時間에際하야 岡田首相、齋藤內府의逝去에 言及하야 英國政府를 代表하야 深甚한弔意를表明하엿다

行動隊와會見한 鈴木大佐 調査局方面과折衝

【東京電話】內閣調査官鈴木貞一大佐는 二十六日夜 行動隊에게 불리워 行動班首腦와 會見中이든바 二十七日午前十一時四十分 調査局에出頭하야 吉田長官 阿部海軍大佐(調査官)松井調査官과 鳩首協議를 進行하고잇다

人事·集會

◆黃爀天氏(江華繁榮會長)江華地方에銀行誘致運動次入京、二十七日本社來訪

◆吉川嘉一郞氏(同理事)同上

◆金根鎬氏(同副會長)同上

◆徐鳳俊氏(同)同上

◆崔麟植氏(同)同上

不再錄號外發行

本社에서는 二十六日 東京事變으로 不再錄號外를 發行하엿슴니다

八面錄

◇라인란드非武裝條項廢棄要求를 듯고, 白耳義가 永世中立에 還元하겟다고。

◇一九一四年에는 永世中立이아니어서 世界大戰의 渦中에 끌려들게되얏든가。

◇『이든』新外相의 安全保障演說을 國際聯盟側이 大歡迎한다고。

◇외면군에 본노릇을 오른편군이 조타하는格, 伊太利나 獨逸보고 물어보소。

◇十億弗의資金으로 全米國의 農村電化計畫。

◇電氣와가티 明朗한消息이 反面에 번개불가티 번적하고 그만둘소리는 아닐가。

中等專門 敎科書買入 五割外 京城寬勳洞·京城閣書店

求職 無資金求職指導 農村都市에 勿論하고 普校卒業後나또는 能動的靑年으로 渡日하는분 二錢郵票同封至急照會 安東縣五番通 文錢堂

朝報案內

개량담배대 型錄及定價表送呈합니다 便利하고 價格이 廉한 京鄕流行의 개량담배대 製造發賣元 京城府鐘路三丁目六九 德昌工業社

果樹苗木 養成販賣 定價表進呈함 開城南山町 興林農園本店 振京一五〇三七

無稅 港大連經由 各國時計多量入荷 破天荒的廉價提供 新義州舊柳町一番地 合名會社 三一洋行時計部 (商報進呈)

生徒募集 第一學年 壹百名 第二學年以上 若干名 文部省認可 興文中學校 廣島縣吳市平原町 (電話一二九八番)

朝鮮總督指定 東萊日新女學校 生徒募集 第一學年生徒 約四十名 出願三月二十三日限 試驗三月二十六、七、八日 (詳細來問)

觀相 開運成功의열쇠를잡은 張竹圃先生入城 今年五十九세의 老翁이라 年二十五세에 智異山에 入하야 修道한以來 今日에至하기까지 모든術法에 達通한지라 그양무더둠을 너무나 愛惜히녀여 이제世上에 頒布하기爲하야 丙子年頭에 入城하엿스니 觀相, 四柱, 易占, 其他天文術法이나 利用하라 普通一圓特別十圓(婦人五十錢) 京城府堅志洞六七 張竹圃觀相所

巡查看守(講義錄) 巡查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를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 特典으로鮮人巡查試驗 朝鮮警務學會 (規則無料送)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振替京城三〇二〇番

賣家 西方陳列場附店舖兼住宅 理想的二層瓦家 急賣 西大門電車通所在 西大門町一丁目八六番地

結核에 네오톤토닉 NEOTONE TONIC 柳韓洋行

若草映畫劇場 (本五二一四番) 安くて面白い 二月二十八日ヨリ三月三日迄 名畫揃ひの御家族週間 階下席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プログラム 名喜劇 ロイドの足が第一 ハロルド・ロイド主演 名篇フランダースの犬 時代劇 風流上州男

一月卅八日特別封切 每日三回(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廿分) 罪와罰 코럼비아社超特作映畫 巨匠요셉·폰·스탐벅監督 文豪떠스토이에푸스키原作 떼터로레이 主演 珍優나포레온 코럼비아社特作映畫 P.O.L.超特作映畫 成瀨巳喜男監督作 千葉早智子主演 妻よ薔薇のやうに 昨年度優秀映畫第一位 (次週封切) 陸非常線 わたしがお嫁に行ったなら 全鮮第一 映畫殿堂 團成社

間島共産黨被告 廿一名不服上告

許玩珍、金今南兩名은無期되여服役

死刑被告一名만猶豫未定

지난 이십사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적(荻)재판장으로 부터 사형 열여덟명과 무기징역 네명의 판결을받은 간도공산당사건 관계자 이십팔명가운데서 金應洙 朴東朝 周現甲 金光默 朴翼燮 劉泰順 李東鮮 崔河龍 曹東律 閔昌植 金龍洙 李鍾立 金東鎬 池蓮浩 崔鍾山 崔昌浩(以上死刑) 車炳哲 安順鎬(以上無期懲役) 李昌福(懲役十五年) 金成煥(懲役三年) 등 이십일명은 이십칠일까지에 전부 고등법원으로 불복상고하엿고 박인환(朴仁煥)(懲役十三年)과원용학(元容學)(懲役十五年)두명은 상고하엿다가 도루취하(取下)하엿고 남어지 사형이복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된 허완진(許玩珍)김금남(金今南)양명은 상소권(上訴權)을 포기하고 복역하기로 되엿다하며 사형판결을받은 사람가운데 박금철(朴金哲)한명만은 아즉 태도미정으로 잇다한다

天文學者들의 臨時「메카」北海道

日蝕觀測次로總集中

【東京電話同盟】 오는륙월십구일 오후네시에 북해도(北海道)에서일식(日蝕)을 관측하려고영국『캠부릿지』대학교수『스트래톤』박사이하 열두명의 천문학자일행은 삼월칠일 『아키텐논』호를 타고 『바ー게ー벤』을 출발하야 일본으로 가기로 되엿다 독일『드맨』박사 『아스타』박사는 괴선『라ー르피치』호로 륙월초에 일본에 도착될것이고 그전인도(印度)의우다이알 천문물리관측소(天文物理觀測所)의『로이즈』박사도륙월초부터 일본으로 올터이고 『하ー버ー드』대학의 『맨젤』 박사는 『아라』 도천문대의 『마운트·윌손』 천문대의 『아래』 박사는 동산불을 부터 일본으로떠나고독 『스트래톤』박사의 조수겸 임시사진가『레』씨는 미국을떠나 일본으로 향한외에 『신가볼향항(香港)』천문고상대의 영국천문학자수명일행이 참가하기로되엿다 이와가티 영국천문학자는 륙월초에 일본에와서 북해도에가서 찰황(札幌)에 근거를두고 북해도제국대학(北大)당국과 여러가지리한다음 조사를 시작한다고한다 이때문에 북해도는 갑작이 외국의 빈객으로 번거려워지겟다한다

三坂通에小火

지난이십륙일오후열한시오십분경에 부내 삼판통(三坂通)이백구번지 권만수(權萬壽)집에 불이일어나 룡산소방서의 출동으로 진화에노력한결과 열두시십분경에불을잡엇다하는데 불이일어나기는 화로에 붙은불이 끄지안코 지다가 불이 옴겨붙은것으로 손해는약 십원이라한다

北部交通에大障壁 寬勳洞貫通路開鑿

工事費八萬圓、受益者土地坪數割로

解氷期부터着工

시내 관훈동(寬勳洞)방면에서 익선동(益善洞) 돈의동(敦義洞)을 횡단하는 도로가 업서 보안상으로 퍽 유감된바 만혓는데 금번에는 공사를 실시케되엿다 즉 도로는 현재 전동(典洞)에서 태화여자관(泰和女子館)뒤로 관훈동에 빠지는 길을 연장하여 동관압 수은동(授恩洞)에까지 나가는길인데 로폭은 팔미돌에 연장 일백오십미돌로 종래 복잡하든 지대가 이 길이 생기기때문에 교통상으로나 보안상 편리하게될터이다 공사는 해빙기를 기다려 착수할 예정으로 방금 토지를 매수중이고 다

공사비는 약팔만원에 그중 약이할인 일만륙천원가량은 토지평수할(土地坪數割)조례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부과할터이다。 토지평수할조례는 작년부터 실시하여 토지를매수하면서 공부과하게되여 작년에도 공사전에 부과하엿스나 불평이 만키때문에 금번부터는 공사완성후에부과하기로하엿슴으로 실제부과는십이월경에나 될터이라한다 그러고 금년지내도로공사중 토지평수할이부과될것은 본정뒷길 남부간선도로와 죽첨정(竹添町)금융조합련합회부근 도로확장등이다

낙시는文藝研究 밋기는文壇進出

架空의研究會員을만들어 入會金等을詐取

문예를 밋기로 동호를사기한자는 시내냉동(冷洞)팔십번지의 최철규(崔○奎)(二○)로 적변사람 금정(金町)○보기학교(○○校)에 재학중 동급생인 시내 청진동(淸進洞)구십삼번지 정진하(鄭○河)(一○)를 속여 문예신극연구회(文藝新劇研究會)란 가공(架空)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에 동회에 입회를 식혀줄터이니 입회금으로 삼십원만 먼저내면 회원증(會員證)을가질수잇고 다른문예단체와도 련락할수잇스며 문단(文壇)에 진출할수잇다고 감언리설로속여입회금을바더오는중에 소비한후에도 재삼 회비니 연구비(研究費)니 하야 십여원을 밧고 그외에도 시계가튼 소지품을 그에게서 빼아섯다는데 피해온액 방금 본원이상이 되리라하며 방금 본정서에서 조사중인데 피해자는 그의 감언리설에 속혀크다란꿈을 꾸고잇섯다한다

中國人賭博軍

지난이십륙일 오후네시경부내 한강통(漢江通)십삼번지의 삼십사호 류덕성(劉德成)의 호떡집에서 도박을 하든 중국인 왕석정(王錫庭)외 수명은 룡산서원에게 발각되여 본정(本町)에사는 주복원(朱福元)(二○)의 외수명은 판에돈을 크게걸고 도박을 하다가 룡산서원에게 붓들렷다고한다

自轉車自動車衝突

지난 이십사일오후 네시경시내 련건동(蓮建洞)어백팔번지압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차의 충돌이 잇섯는데 가해자 시내본정(本町)○○씨운전수 호기빈(扈基彬)이 경(京)구천이백이십칠호를 모라 원남동로타리로 나려가다가 그만 피해자 창신동(昌信洞)백사십구번지의이 장상운(張相雲)의 자전차와 충돌하야 피해자는 커로약일주일가량의 부상을바덧다한다

離婚屆僞造犯審理

【平壤】평양부내 설암리(薛岩里)강긔선(康基善)(二○)에관한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긔재 사긔횡령사건은 이십륙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서전(西田)판사 대총(大塚)검사립회로 개정되여 사실심리를 햇는데 강긔선은 기생 리병선(李丙善)과소화구년이래 동거하여오든중 리병선의 재산을 마러먹으려고햇스나 본처가잇서서 뜻가티 되지안으므로 본처와 협의하고 리혼계를 위조하여 리병선과 완전한 부부로서 수속을한후 동거중 소화구년오월부터 십년삼월까지의사이에 리병선의 재산 사천여원을 횡령하여 버렷든것이라한다

中央時報押收

금이십구일 발행하려든 『주간중앙시보』(週刊中央時報)혁신호는 당국의 기휘에 저촉된바잇서 압수되엇스므로 그사에서는 임시호를 발행하려고 분망중이라는데 오는 삼월초 토요일에야 발행되리라 한다

元山海岸通에 覆面强盜出現

【元山】지난이십륙일 오전네시경 원산부해안통륙정목(元山府海岸通六丁目)원촌(元村)의방에얼골을 헝겁도리로 싸고 손에식칼을들고 압창문을 깨고신세쯤된남자가 침입하야 취침중에잇든 원촌을흔드러깨우고 『돈을내라』고 위협하얏스나 원촌은돈이업다고 거절하자 이에복면강도는 약오분간이나 아모말도 하지안코 칩복하고잇더니 그만 슬며시 나가고말엇다는데 이사실을접한 소관 원산서에서는곳 서원을 비상소집하야 수사진을 펴고 수사에 노력하얏스나 아직것 체포치못하얏다고한다

손님으로서窃盜

시내 옥인동(玉仁洞)백사십일번지에 살며 수송동(壽松洞)어떤회사에다니는 김만영(金萬榮)(二七)은 지난십일일새벽세시경에 병목정(並木町)팔십이번지 을목선명루에드러가 창기 김경업(金敬業)의방에서 하로밤을자고나서 그이튿날 아츰여섯시쯤되어 김경업의 팔목금시계 사십원자리한개를 훔처가지고 그후감추어 두엇다가 지난 이십 ... 일에 ... 이므로 ... 지방유지제씨는 ...

共軍大部隊

國際列車轉覆企圖

이월이십오일오후네시경 경도선 하발령(哈發嶺)부근에 공산군약이백오십명이 나타나 국제렬차를 습격하려고 대긔중이라는정보가 잇서、현지 주둔독립보병제칠대대 용상대장(龍上隊長)이하 이십명은 장갑렬차로 현지에 출동하엿다고 또이보다 먼저 명월구(明月溝)수비대에서는 그정보를밧고 수비대장이하 전원이 남구(南溝)에 출동하여 토벌중이라한다

普校學級增設運動

【固城】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입학난이 극도에 달한바이어니와 고성군하일면 공립보통학교(固城郡下一面公立普通學校)는 금번도 신입학생이십오명모집에 지원아동이 일백오십여명에 달하엿슴으로 지방유지제씨는 이입학난을 해결하기위하야 지난이십사일에 당지보교(普校)에서 학급증설긔성회를 조직하고 삼변간에 상환금 증설할계획이라는바 지방부담금 륙천원을 모집하게되엇는데 긔성회측에서 이천오백원의 자진기부가 잇섯스며 삼천오백원은 모집할계획인데 금번도부터 강습과(講習科)라도 두어 다소의 입학책을 강구할모양이라고한다

威空嶺에共軍

上等兵一名이戰死

이월이십오일오후 세시경 경도선위공령(威空嶺)일대에로 병과 공산군의 충돌부대약일백오십명이 습격하여와서 약다섯시간이나교전후 격퇴식히엇는데 전투중에 상등병한명이전사하고 수비대장중촌중위(中村中尉)소판조장(小坂曹長)의 두명은 중상을당하고 그외에도 경상자가 약간이섯다

高級綢緞專門 平壤 唐林商會

赤行囊事件公判

懲役五年을言渡

被告控訴權을棄却

【慶州】루보=본적을 경주군천북면덕산동(慶州郡川北面德山洞)에두고 동경사립마포수의학교(東京私立麻布獸醫學校)이년생인 최성락(崔聖洛)(二三)에대한 적행낭이사건으로 만흔희생자를 내여 일반의 주목을끌든 사건인만치 운집한방청인의 류청파에 먼저 양본검사의 준렬한 론고로 징역오년을 구하엿슴으로 례에의하야 판사는 잠시 드러갓다가 다시법정에낫하나서 엄숙한태도로 구형과가티 징역오년을 언도하자 피고는 공소권을 긔각하고 복역하기로하엿다한다

四十餘個普校卒業生 갈곳업는上級校

三水甲山豊山三郡代表가 中等農校設置陳情

함남갑산(甲山) 풍산(豊山) 삼수(三水)삼군대표 우종엽(禹鍾燁)、조기렬(趙基烈)、길상형(吉相亨)、삼씨는 이십륙일에 상경하야 그곳에 농림중등학교(農林中等學校)를 설립시켜달라고 총독부에 진정하엿다 그세고을에는 공립(公立)과사립(私立)초등학교가 사십개나잇서서 해마다일천륙백명의 졸업생이 나는터인데 그가운데서상급학교에 입학을 지망하는사람이 삼백명이상에 달하나 가까운곳에 중등학교가 업스므로 그 목적을달하게 되는 사람은 극우 이할이하정도에 넘지못하는 상태인즉 그지방에 적당한 중등농업학교 한개쯤은 긴급히 설치해주어야 되겟다는것이라한다

權、姜兩氏特志

【晋州】경남 하동군 옥종면안계리(安溪里)시장을 위치를 변경코저 긔성회를 조직하고 적극적활동을한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지난 이십삼일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靑龍里) 권운용(權雲容)씨가 금일천이백원을 희사하야 시장과지 일천여평을 매입하얏슴으로 일반의칭송이 놉다 그리고 진주읍 영정(榮町)강문현(姜文鉉)씨가 금일백원을 시장운동비에 보태여쓰라고 희사하엿는데 어말할것업슨 각계(各界)인사들은 량씨의독지에 감사하여 마지안는다고한다

齊齊哈爾驛에强盜

現金四萬圓强奪逃走

이십사일 오전 세시사십분경 제제합이역 조역실에 두명의 만주인 강도가 침입하야 숙직원세명을 피스톨로 협박하야 금고를 여러 현금사만원을 강탈도주하엿는데 이급보를 접한 경찰당국은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全朝鮮簡易保險

八十一萬件突破

조선간이생명보험(簡易生命保險)의일월말 현재의 계약총건수는 조선인 오십칠만이천사십칠건、일본내지인 이십삼만팔천칠백십오건으로 모다 팔십일만칠백륙십이건으로 그보험료는 팔십일만칠천 ... 십삼전이며 보험금액은일 ... 이다 그런데 계약자의분포상황을 지방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갓다

道別	契約件數
京畿	一六九、〇八九
忠北	二三、〇九七
忠南	五二、四八七
全北	五四、五一六
全南	六三、五八八
慶北	六一、八五四
慶南	八九、八一五
咸南	五四、五六七
咸北	四四、〇四二
黃海	四六、四六八
平南	六〇、一一三
平北	五七、五〇二
江原	三三、六二四
計	八一〇、七六二

崇專、崇中問題 解決曙光發見

今明中喜消息發表?

【平壤】숭전과 숭중(崇中)양교의 문제를 해결하고저 이십사일 경성에서 나려온 동교설립자 마포삼렬(馬布三悅)박사는 그동안 중앙선교사측 간부들과 해결책에대한 토의를 하든중 이십오일밤 집합햇든 위원회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서광을 발견한 모양으로 금명중 시원스러운소식이 전해질것으로 추측된다

折疊洋傘發明

조선의 발명열은 최근에 이르러상당히 향상되는바는 누구나아는바어니와 이제 또새로 우리조선청년의 손으로 고안되여특허공보에 발표된 발명품이잇스니 그것은 질첩양산(折疊洋傘)이라는 간편한 양산으로서그살과대를 접어서 짧으게 만들고 포피(布皮)를 벗겨서 조고마한주머니에 너흔후 포켓이나 가방가튼데 너허다가 비가올때에는그것을꺼내여신속히 사용할수잇도록 되것인바 접으면 보통양산기리와 상품의일년게는 안되나 페면은 보통양산과 꼭가

運動競技

世界올림픽 陸上競技日程(上)

마라손은八月九日

【伯林發聯通郵信】第十一回世界올림픽大會中의메인이벤트인陸上競技는 大會期日의 前半八月二日로부터 九日까지(八日間)伯林『올림픽스타디엄』에서 擧行할터인데 其日程及細則은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申請規約=各國의 出場希望種目은 六月二日까지 大會本部에 通達할것과 個人及團의最後參加申請은 七月十八日까지로함 同月十八日以後의 參加追加及 種目變更을不得함

▲大會統制團體=國際陸上競技聯盟=會長『스이그후릿드·에드쓰트룸』博士(瑞典)主事『뽀·에그룬드』氏(瑞典)

▲申請人員=一種目一個國三名限 各種目出場選手는申請한三名以內로補欠을不許함

▲賞品=一等賞 金文字入銀메달 二等賞 銀메달及賞狀 三等賞 銅메달及賞狀

▲正式種目=◇퓨러競技 男子(十二種目)百米、二百米 四百米 八百米、千五百米、五千米、一萬米 마라손(四二粁一九五米)=二六哩三八五碼 三千米障碍、高障碍、中障碍、五萬米競步 女子(二種目)百米 八十米障碍

◇필ー드競技=走高跳 走幅跳 三段跳 棒高跳 投槍 投圓盤(二瓩)投砲丸(七瓩二五七瓦=十六封度) 投鎚(七瓩二五七瓦=十六封度) ▲女子(三種目)走高跳 投圓盤(一瓩)投槍(六百瓦)

▲男子十種競技=百米 走幅跳 投砲丸、走高跳、四百米、高障碍 投圓盤、棒高跳、投槍、千五百米

▲繼走規約=各國各리레參加는八名을 超過함을不得함 男子(二種目)四百米繼走(百米式四名)千六百米、繼走(四百米式四名) 女子(一種目)四百米(百米式四名)

◇規約=國際陸上競技聯盟規則을適用하며 規則解釋에 疑義가잇슬때에는 英文規則을 基準으로함

大會日程

◇第一日(八月二日日曜日)午前十時半 百米第一豫選 走高跳豫選(最低記錄一米八五)同十一時 投丸砲豫選(最低記錄十四米五〇)

午後三時 百米第一豫選 女子投槍決勝 走高跳決勝 同四時 八百米豫選 同五時半 投丸砲決勝 一萬米決勝

◇第二日(八月三日月曜日)午前十時半 四百米障碍第一豫選(但申請人數에딸아省略할 時도有함)

午後二時四百米障碍第一豫選 投鎚決勝 同三時半 百米準決勝 同四時 女子百米第一豫選 同五時 百米決勝 同五時十五分 八百米準決勝 同五時半 女子投圓盤決勝 同六時 三千米障碍豫選

◇第三日(八月四日 火曜日)午前十時半 走幅跳豫選(最低記錄七米) 同女子圓盤投豫選(最低記錄三六米)

午後三時四百米障碍準決勝 同三時半 二百米第一豫選 同三時十五分 女子投圓盤決勝 同四時 高障碍第一豫選 同四時半 二百米第二豫選 同五時 走幅跳決勝 同五時 女子百米準決勝 同六時 五千米準決勝

◇第四日(八月五日 水曜日)午前十時半 高障碍第一豫選(申請人數가적을때에는省略함)棒高跳豫選(最低記錄三米八〇) 同十時半 投圓盤豫選(最低記錄四二米) 同十一時 千五百米第一豫選

午後一時 五萬米競步決勝出發 同三時 二百米準決勝 投圓盤決勝 同三時半 女子八十米障碍 同四時 棒高跳決勝 高障碍第二豫選 同四時半 千五百米第一豫選 同五時半 女子八十米障碍準決勝 同四時五十分 五萬米競步決勝終了 同六時 二百米決勝

올림픽拳鬪決勝

三月一日로延期

【東京電話通】世界올림픽拳鬪最終豫選兼 全日本拳鬪選手權第二日決勝戰은 二十七日午後六時부터 日比谷公會堂에서 擧行할 豫定이든바 事情에依하야 來三月一日로延期하엿다

印度서四十五名派遣

【봄베이發聯通】第十一回올림픽大會가 迫頭함에따라 各國은그參加에 奔忙中인데 印度에서도 今般大會에 四十五名選手를 派遣하기로內定하엿다

身長三尺四寸의 小人拳鬪家

巴里서大人氣

【巴里發同盟】方今巴里의 拳鬪界에서 非常한人氣를 이끌고잇는 拳鬪家『아우렐·드나宮』(루마니아出生)은 身長이實로一米〇四(三尺四寸三分)밧게못되는小男으로서 『루ー마니아』에서는 프라이級과 페더ー級의 選手權을獲得하고 活躍導至지저서 巴里에來征하엿는데 때마츰 佛蘭西의 村으로부터 突現한 二米二八六(七尺五寸四分)이나되는長身拳鬪家 죠ー쟌의選手를보고 暗然한때이라 이와反比例되는 小人選手의 出現은人氣의 焦點이되여잇다 『드나』選手는 當年廿四歲인데 戰績은六十戰 四十勝이란 快續을 保持하고잇스며 故國에서는籠球選手로도 堂堂한 活躍을하고잇다한다

世界올림픽力技豫選大會
日時 二月二十九日午後六時
場所 朝鮮日報社大講堂
入場料 一般30錢 學生20錢
申請今日限 (期日二月廿七日限▲處所 鍾路二丁目朝鮮體育會▲參加金每人五十錢▲計量 廿八日午後四時中央體育研究所)
種目 推上 引上 擧上
主催 朝鮮力技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어린애등에업고 投江?失足慘死

解氷漢江에母子屍!

【京龍】어시륙일 오후열두시경 한강교 건너 여의도(汝矣島)압새강어구에는 나히삼십이삼세가량밧게아니되여 보이는어엽분 녀자의시체하나가 등에는 나흔지불과 십삭밧게아니되는어린것을채 빽빽이 어러서압분어름판우에 떠밀여잇섯다 이를행인이 발견하고 즉시한강교파출소에다 계출을하엿는데 동소에서는 서원이 현장에달여가검시하엿스나 아모런 증거될만한것은 업스므로 호로신자살인가? 그러치안호면 얄분어름을 발고가다가 실족하야 죽은것인가의아할뿐으로 신원기타 전허알수업다한다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滿洲朝鮮으로퍼지고잇는데 그氣勢는 微하다 濟州島의 西쪽日本海、北海島부근에 적은低氣壓이잇다 北滿은 晴天、南滿、朝鮮及日本內地는 大體로흐리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 흐리고 來日은晴天이다 京畿道全區도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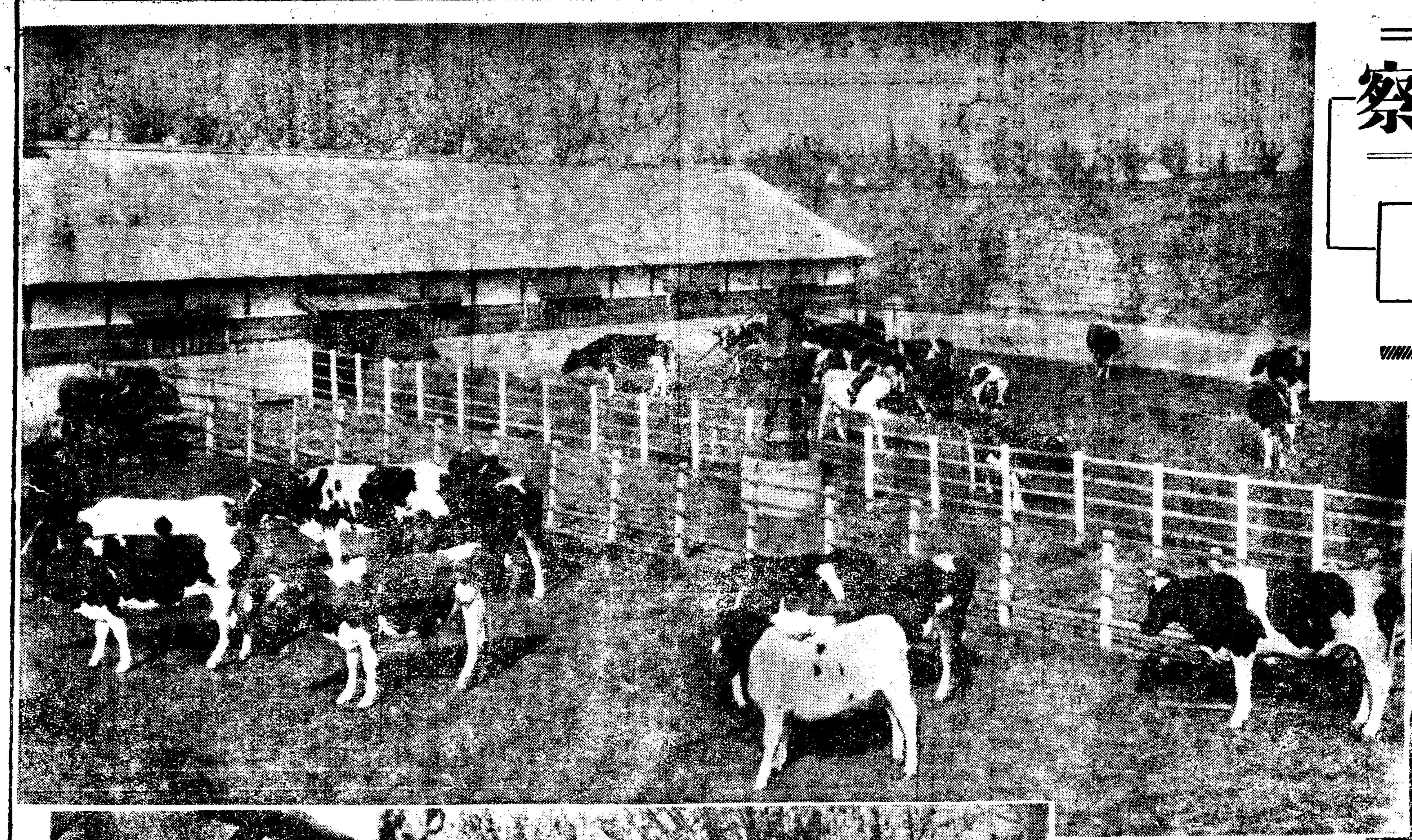
昨日最高 一度八
同 最低 零下七度
今朝最低 零下五度
今日正午 零下三度三

補血 強壯
強壯補益水
―補血強壯新藥―
누구든지服用하면
迅速한新陳代謝
血液循環에旺盛
精力增進
食慾增進
營養佳良
虛弱恢復
老衰阻止
等에作用을하야 體軀를根本的으로改善한다
本劑는高貴한强心强壯劑를藥物學的研究와化學的操作을施하야純正한學理를基礎로配合製劑한것으로補血强壯營養等에諸點을完備한理想的强壯劑입니다

登錄 商標
活命水
各家庭에常備하실
起死回生 救急胃腸藥
適應症
陰血陽氣不足、精力減退、神經衰弱、心火煩燥、虛汗、老衰、營養不良、食慾不振、眩暈、氣虛、貧血症、痰盛、遺精、其他一般氣不足等에有効
效能
老少男女의胃加答兒、吐瀉、霍亂、急滯、久痢、中暑(暑症)、卒倒、人事不省等危急症及惡疫流行時
定價 [illegible]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京城和泉町五番地
製造本舖 株式會社 同和藥房
電話光化門二七一九番 振替京城三三一八番

봄의前哨陣偵察

카메라에비친 季節의感覺詩



【左上】 『클로버』입사귀에 물이오르면 양지바닥에는 「음메」「음메」소리가 들려옴니다 양지바닥에 들리는 「음메」「음메」소리는 벌서 강건너봄이왔다는 신호입니다

【左下】 나루는 오래지안허서 어름미레서 검은 물결이 머리를 추어들줄을 알므로 가는곳마다 전비(戰備)에 바쁨니다 강건너 마을에 쩡쩡울리는 정소리는 봄에대한 선전포고(宣戰布告)입니다

【右上】 『봄은 「버스켓」처럼 달큼하구려 「비스켓」은 봄처럼 달큼 하구려』

【右下】 온실(溫室)은 지난해 봄이버리고간 엄마엄는 아히엿슴니다 이제엄마가 다시오신다기에 온실은 「때때」를입엇슴니다

異次頓의死 【104】

李光洙 作 金奎澤 畵

『별님 자나?』

하고 달님은 잠을 깨어서 겨테서 자는 별님의 손을 잡아 흔들엇다。

『아니오 벌서 깨엇소』

하고 별님은 일어나안즈며、

『벌서 깨엇지마는、첫 닭 울이에 깨엇지마는 아가씨께서잠이 깨실까 두려워서 가만히누어잇섯소。이 밤에는 좀 편히 주무섯나요?』

하고 달님의 손을 소중스럽게 두 손으로 잡는다。

여긔는 대궐안 평양공주 계신 채의 뒤에 연한 곳 달님과 별님과 버들아기가 두방을 차지하야 달님과 별님이 한 방에서 자고 공주의 시녀 한 사람과 버들아기가 한 방에서 자고、이차돈과 고주는 돌아가신 동궁이 계시던 방에 머물러잇스니 그것은 담을 하나 새에 둔 곳이엇다。

아직 밝지는 아니하엿다。

별님은 일어나서 옷동잔에불을 켜고、

『아가씨 그렇게 잠을 못주무서서 어찌하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피가 마른다는데。밤마다이리 저리 돌아누으시기만 하고 밧삭 소리만 나도 잠을 깨시니 『그、원、어찌하시나』

하고 퍽 수척한 달님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아니 오는 잠을 어찌하나?』

왓고 달님은 눈을 비비며、

『봄이 되면 초목도 곤하다 하건만、이몸은잠이 오지아니하니 졸리는듯 하다가도 눈을 감으면 정신이 바짝 들고、이런 생각 저런 생각、생각만 꼬리를 물고、아아』

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운다。

『생각이 뒤숭숭하거든 염불을 하라고 하셧것마는』

하고 별님도 한숨을 지며、

『이몸도 염불은 하건마는』

하고 말을 맷지못한다。

『그러기에말이야』

하고 달님은 옷을 갈아입노라고 한 팔을입고는 멈거니 쉬이고 또 한 어깨를 걸치고는 멈거니 쉬이면서、

『아모리 염불을 하건마는、생각이 몰려들어와서는 염불을 밀어내고。이몸이 넘어도 전생금생에 죄가 만하서 그런가。넘어도 젊어서 그런가』

하고 천정을 바라본다。

『젊어서、예、참 젊으서서』

하고 별님은『젊어서』라는 말이 마음에 들엇다。

『이세상이 덧업는줄을 모르는 배도 아니언마는――이몸이 덧업는줄을 모르는 배로 아니언마는、――이몸의 젊은 욕심이 다 헛된 것이오、인생의 낙이다 못미들것인줄을 모르는배도 아니언마는、그러컨마는 그 못들 인생의 낙이 그리워서、그 헛된 젊은 몸의 욕심이 불타듯 타올라서、아아 어쩌면 조은가。오늘이나 나올까 내일이면 좀 덜할까 해도、그날이 또 그날、날이 갈사록 번뇌는 점점 더되니。새소리가 들려서、꽃향긔가 나도 나비가 날라지너가도 가슴이두군거리고 상긔가 되고 ――저 꽃동산에 서리가나리고 눈이나 덥혓스면 좀 나올까。별님아、이게 도모지 무슨 일일까。몸은여긔 잇고 마음은 딴데로 가고、그저그저 허전하고 그립고어젯밤에는 하도 허전하길래로별님 자리에 들어가 별님을 꼭껴안아나 볼가 하엿지마는、고달프게 잠이 든것을 깨오기가아처로와서、아아 부끄러워!』

하고 달님은 낫을 손으로 가리우며、

『이몸이 어떠케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할까。엽치도 다 숨어젓나。참괴하는 마음조차 다 무드어버렷다?』

하고는 깔깔웃는다。

『원 별말씀을 이몸의 앞헤서 무슨 말슴을하시기로 허물이 잇겟소。이몸도 아가씨와 가리젊은 몸。아가씨의 가슴ㅅ속을 설레게하는 봄ㅅ바람은 이몸의 품에도 수미어드는것을』

하고 별님도 손으로 낫을 가리운다

『그런가。별님도 그런가』

하고 달님은 낫을 가리운 별님의 팔을 잡아당긴다。

獨逸特許美肌料스킨호르몬性라세란配合

朝の若肌

ゴールド マスタークリーム
마스타크림

夜つけて!

二月二十七日부터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上映 日曜祭日은晝夜二回公開 夕一時半七時十五分開映
◇콜럼비아社超特作品全發聲日本版
探偵劇 正邪의兄弟
監督 로이윌리암닐
主演 파ー도라이데ー氏
名作으로서는藤原義江의名曲이나하야도觀客에게여러분이쉽게하나고시인하게될만한名畵中에도名畵!
◇J·O·スタヂオ日本ビクター全發聲版
歌劇 百萬人의合唱
監督 富岡敦雄氏
ビクター專屬歌手總出演
藝術노래이야말로靑春男女의달콤한사랑에멜로디를보고드르시라그누구가生命이시를音樂映畵
◇京都撮影所超特作品
大活劇 虎狼의巻
監督 井手錦光之助氏
活劇王 高田稔氏
◆豫告 三月一日부터晝夜六日間
朝鮮映畵 薔花紅蓮傳 그날밤의
▲ク期待=太平洋攻防戰=洞窟의女王
光熙町 桃花洞 電話本局二三三番 桃花劇場

二月二十五日부터三日間大公開
晝夜三回興行 正午十二時 三時半 七時半始映
大衆料金 階上席二十五錢 階下席十錢
유니이ー드映畵社超特作品全發聲
워ー드우잉구監督
海底爭鬪 사마랑크
아랑 사이유 主演
JO太秦發聲映畵社超特作品
古海卓二監督
旅鳥お妻やくざ
伏見信江主演
가을!한조각구름아래무거운다리의三度笠을짊어지고어제도旅行!오날도路上으로!來日엇지될줄몰으는生命お妻!妖麗伏見信江美劍士에多端한一生記!!
리차ー드달맛취프로덕숀特作品
우이리암가랑監督
冒險狂脫線息子
鳥人리차드달맛취主演
豫告
すみれ娘、あるぷす大將、理想鄕の禿頭、恩讐、化粧の天使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電光二三○番 第一劇場

二月二十五日부터三日間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大衆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均一 封切
유나이트아ー티스트世紀映畵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저진拳銃
監督 로ー란드·부라운
죠ー지·방크로프트 主演
亞米利加映畵로第一級品制裁篇
R·K·O·社超特作라지오映畵
監督 바ー트·구레논
◎恐怖의불꽃
野蠻의偶像의祭物로火焰속에서死生을決定하는白人男女은死線을突破한焦燥篇
松竹京都作品·사운드
監督 大曾根辰夫
◎木曾の紅笠
豊富한情緖를編成한人間愛欲의赤裸裸한一幅의情炎詩!!
仁寺洞 電光三六一 朝鮮劇場

東劇座第三週告別興行
二月二十四日부터晝夜一時夜七時(晝夜二回公演)
(地方公演次로巡業의길을떠나서四月에나다시歸京할것입니다)
李雲芳作 戀愛悲劇
地上의天使 二幕
한개의男子를사랑하는處女의純情은天使의그것과가티天使는반다시하늘에만잇는것이아니다聖스럽운處女의愛情가기에서우리는天使의아름다운그림자를볼수잇다
李雲芳作 社會劇
正義의復讐 三幕
感情이正義化하는곳에거기에무서운復讐가이러난다名優物質이世上모든것을버리고다만復讐의一念에타는男子의巨奏를보라
花山學人作 喜劇
賣約濟 一幕
마을을떠나서따딴곳에빼앗긴그들은엇더케識實할것인가아버지는그땅의몸둥이를나이엇슴병이다다그마음은하누님이支配하는것이다마음가는곳에몸이가는實驗을보라痛快한喜劇!
二十八日부터四日間
劇藝術研究會公演
竹添町一丁目 電光八三三番 東洋劇場

양의(洋醫)가 본 『풍』이란병 (一)

大學醫院伊藤內科敎室 朴秉來

한방의학상으로 『풍』이라고속칭하는질병을 현대서 양의학의입장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떠한병의종류에속한것일까 특히 내과방면의 질병으로서가장 어떻게생각하는냐하는것은 어떠한흥미깁흔 그『풍』의예방은어떠케하여야될까를 통속적으로말삼하여 독자여러분에게 참고로제공코저합니다

그러나 이문제를말삼하기전에 먼저말삼하여야할것은 한방의학과서양의학이 질병에대한이론이 다르며 또는 의견이 각각특이하고 그기초적견해가 갓지못한관계로 엇더한질병을 올톤하고 지적으로 가른질병이라고 지적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방의학에대한 연구지식이업는 필자로서는 한방의학상의 진단을 논할자격도업습니다 그러나 다만으로 서양의학을 연구하며 일편으로 실상변간이나 임상에서 속접 병자를 직접치료하여 흔히 환자또는 한방의사로서 한방의학적병명을붓처놉니다 이러한경험으로 매일 진단하고 치료하는 어떠한병은 한방의학상으로는 어떠한병으로 치게되며 따라하는 침과한지식을 엇게되앗스나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또는 그러치 안한것인지는 철저적으로 양방의학을 연구한연후가아니면 비교하여 말하기어렵습니다 이외가티 막상키 어려운 문제를 단순하게 어떠드른지식으로써 말삼하게되엇스니 머나 주관적의견이 될지모르겟스나 특히 양해하야주시기바랍니다

대저 『풍』이라하는것을 한방의학상으로 어떠케 설명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려면 먼저일반질병의원인에대한설명을하여야될것입니다

한방의학상으로 어떠한병을물론하고 병이르키게되는것은 몸에잇는 음과양과의 기혈(氣血)이 균형(均衡)을 보전하지못하게되며 그균형을 보전치못하는원인은 불가항력(不可抗力)과 자신의부섭생(不攝生)이원인이된다합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이라하는것은 엇더한것을말한것인가 천지의운행(運行)으로인하야 천기와지기의 변동이 생김을 말하는것이니 즉천기에는 금(金)、목(木)、화(火)、수(水)、토(土)의 오성(五星)이 잇서 이러한 별들이 십간(十干)을 도를때 서로 번가려 주재(主宰)가되게 되나니 그주재가 바귀어게될때에는 지상에 잇는 오긔(五氣)에도 그 영향으로 변동이 생기게된다 합니다.

즉 오원(五元)으로된 오장(五臟)이 그 영향으로 인하야 균형작용을 일케되며 따라서 서로 상극의 지위에 잇는 장긔(臟器)는 허약(虛弱)에 떠러저 드되여 질병을 이르키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원(五元)이라 하는것은 우주만물을 구성(構成)하는 원소(元素)를 화、금、토、수의 오원으로 하얏스며 오장을분별하여 심장은화、폐장은금、간장은목、비장은토、신장은수로 구분하고 내장의 관계작용에대하야 금은물을생하고 목은화를생하고 화는토를생하고、토는금을생하는 상생법측(相生法則)과 화는금을、금은목을、목은토를、토는수를 상극하는 상극법측(相剋法則)으로써 증세를설명하며 치료를하게되다고합니다 또 지긔(地氣)에는 십이지(十二支)를 도를때 춘하추동의사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절기에는 사긔(邪氣)가생하며 한열오양의 변동이 이러납니다 다 그런변화가 될때에는 심장은 열사(熱邪) 폐장은한사(寒邪)、간장은 풍사(風邪) 비장은 조사(燥邪) 신장은 습사(濕邪)등의사긔에 침범을 당하게된다고 설명하며 이와가티 천기와 양의사긔가 오장을 침범하여 풍이라칭하는 질병이되고 음식으로서 륙부(六腑)를침범하면 상한(傷寒)이라는병이되고 토지의습사(濕邪)가 피부、근육을 침범하면 담(痰)이란병을 이르키게된다합니다

봄사치는구두에

신발이데데하면 사람꼴도 사납다

〃새구두 해신으시려거든 먼저이걸아십시요〃

봄의 사치는 구두에 잇습니다。구두가 데데하고는 아모리 찬란하고 황홀한 의복이나 장식도 빗이 나지안습니다。그러나 구두에도 의복을 딸아서 신는 종류가 다각각 다릅니다。아모리 보기조흔 구두라도 제직에맛지 안 하서는 남의 씩웃꺼리만 되고 맙니다。멋부려 사치하자고 그런 지식을 배혼다는 것은 오히려 옷읍지요만은 상식삼아 알아 두시는것은 무방하지 안습니까? 또 하필 갑비싼 것을 사다가 격에 마치려고 애쓸 필요는 업지요만은 수수한 그대로 면무식을 해두는것쯤이야 관게잇습니까? 자、지금 구두에 대한것을 엿쭙고자 합니다。

첫재 구두는요그 모냥으로도 여러종류가 잇고 그 가죽으로도 여러종류가 잇습니다。그중의 중한것을들면 아래와갓습니다

모냥으로본종류

(一)단화 목이 짜른 구두입니다。그것을매는데는 끈도잇지만은 단추도 잇습니다

(二)편상화。목이 긴구두입니다。매는데는 끈도 잇고양여를쇠엇다 늘엇다하게 맨든것도 잇습니다。

(三)장화 아조 길다래서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구두입니다。그런 서양서는 보통때도 그런 구두를 신은 모냥이나 지금은 비올때 말탈때등이외 신지 안습니다。

가죽으로본종류

(一)칠피구두 가죽에 에나멜을칠한것

(二)키드구두(깃도)양의가죽으로 맨든것

(三)엘크구두。녹피로 맨든가죽입니다。

(四)복스구두쇠가죽으로맨든것

(五)강가루구두 강가루껍질로 맨든것등

그런데 그가죽의 염색을딸아 빗도 여러가지가 됩니다 검은빗 누른빗 자지ㅅ빗 가지각색이 다 잇습니다。

×

이 여러가지 종류에서 구두를 구두대로만 골라 신어서는 아조 안됩니다。의복에 마치어 이런데는 이런것을신고 저런데는 저런것을 신어야만 합니다。위선 보통부인네의 옷에는 굽이 나즌것도 무방하지오 만은 호사스러운 방문복(양장)에는 어울리지안습니다。또 보통때에는 딴빗도 신어서 관계치 안합니다 만은 례복에는 반듯이 검은빗을 신어야 합니다。

(一) 연미복이나 택시드에는 반듯이 단추로 끼는 에나멜단화를 신어야 합니다。

(二) 푸록코트나 모닝에는 복스나 키드나 검은빗단화는무방합니다。

(三) 모닝을 례복삼아 입지아니할때는 편상화도 조코 또다갈색화도 조흡니다。

(四) 야회나 무도회에갈때 부인네들은 금빗 은빗가튼것을 신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의복감과 가튼 감으로 맨든 구두를 신습니다。

무어 조선서야 상관이 잇습니까만서도 서양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히 보는 모양입니다。서양ㅅ사람의 의식에 밝안구두나 노란구두는 물론 다갈색구두만 신고가도 아조 조하하지 안는답니다。

×

조선옷에도 의복빗을 딸아 구두빗을 보는것은 조흘리라고 봅니다。가령 하얀 치마미테 강가루 구두를 신거나 파란치마미테 식빨건구두를 신는다거나 해서는 암만해도 볼꼴이 사납지 안할까 합니다

家庭

봄 先發隊

때때로 겨에맛지안케 눈도오고 바람도찬듯하나 약빠른 장사꾼들의 가진손재조를 피워노흔 거리의 진열창엔 어느새 고흔색갈과 첨단적 문제를가진『푸린트』로 바-레누나렌바-크로 메이저볼 몸에감은 봄색씨들이 메인의 마음을 흔들

집에서나학교갈때입을 어린따님의양복 ❷

任貞爀

(3)압쪽치마

조희우에 길이 四十八센치 넓이三十三센치되게 네모가 반듯하게 그리고 허리통은 가운데서부터 二十四센치五미리 되게 하되 아래로 一센치 나려오게 하야 조곰구부슴하게 곡선을그리고 엽솔기를 나리긋습니다 엽솔기는 먼저똑바로 사선을 긋고 밖그로 一센치쯤 내살니여 곡선을긋습니다 곡선을그을때는 웃부분은 만히꾸부리지고 아래ㅅ쪽은 거이즉선이되도록긋습니다 도련은 四센치 올니여서 가운데쪽은 그냥똑바로 긋다가 엽호로 가면서 차차 올려 긋습니다

(4)뒤쪽치마

이것도여시 조희우에다가 길이사십사센치 넓이 삼십이센치되는 구형을 그려노코 허리통으로는 가운데에서 엽호로 이십삼센치오미리 되는곳에서 일센치아래로 곡선을 조곰 구부러지게 긋습니다 다음은 엽솔기를 그리는데 먼저 똑바르게 사선을긋고 밖그로 일센치 내살리여 곡선을긋습니다 도련은 이센치 엽헤서 올리여 둥굴게 그리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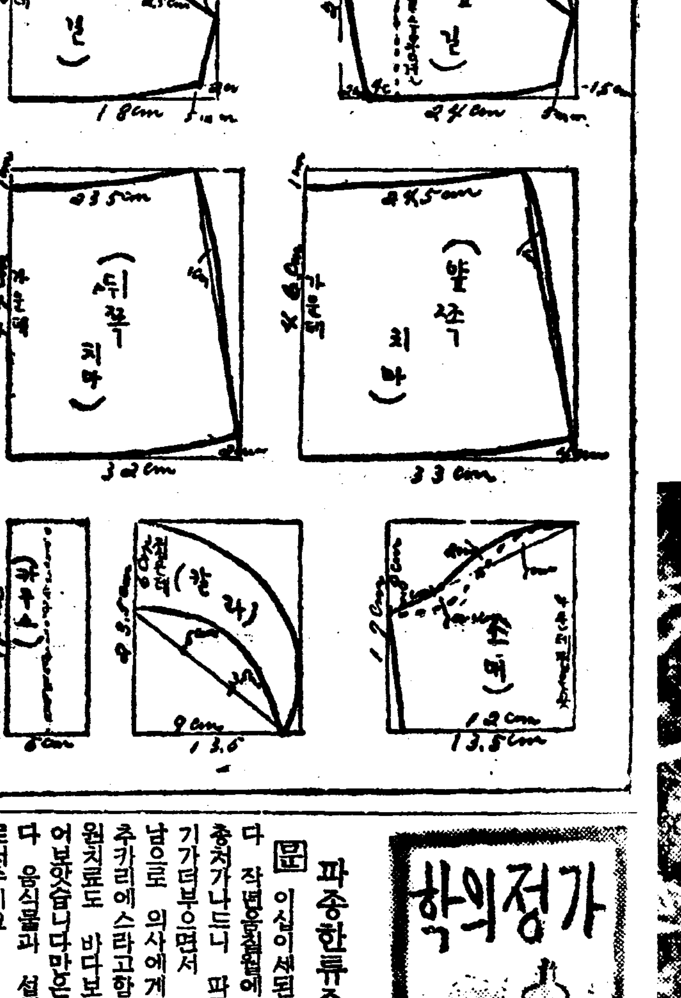
(5)소매

조희를 길이 십칠센치 넓이 이십칠센치되게 벼서 밧에 접어노코 접은후에서 팔쎈치 아래로 사선을 긋고 이선우로 삼쎈치 되는곳에 표를 해놉니다 그리고 삼쎈치 표한데까지는 그냥 사선대로 올나오다가 밧그로 이쎈치 내살리며 활등처럼 구부슴하게 곡선을 그립니다 이선이 압쪽으로 올 소매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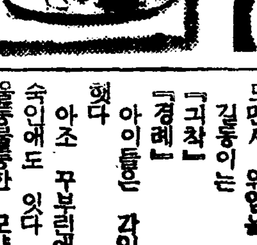
다음은 뒷소매동을 그릴터인데 그림에는 점선으로 표했습니다 먼저 사선을이등분하야 접은쪽은 밧그로 일쎈치 내살리며 곡선을 이등분한점까지긋고 다음은 이여서 안으로 일쎈치 드리파서 곡선을 긋습니다 소매부리는 십이쎈치되게하야 배래기선을 그면 소매는다 되엿습니다 그런데 지금그린소매는 반소매이나 손목까지 길게하려면 길이를 삼십구쎈치되게 하면 손목까지 길게 됩니다

(6)칼라

조희를 길이 이십삼쎈치오미리 넓이 십칠쎈치되게 벼서 절반에 접어노코 접은후에서 구쎈치 아래로 륙쎈치 되는곳에서 엽호로 사선을나리긋고 이선을 삼등분 하야 그림가티 오센치와 삼센치오미리되게 안으로 파서 곡선을 긋습니다 다음은 이곡선 밖그로 차차 좁게하야 칼끗모양으로 그림과가티 끗흔 뽀죽하게 그립니다。카우스는 길이 이십사센치넓이 오센치 되게하야 점선대로 밧에 접어서 닯게 합니다



가정의학



파종한류수농양

問 이십이세된 미혼녀자입니다 작년겨울철에 바른쪽볼기에 충처가나드니 파종이되엿는데 볼기가터부으면서 고름이 늘만히 남으로 의사에게 진찰하니 그래 추카리에스라고함니다 그래 병원치료도 바다보고 한약도 먹어보앗습니다만은 효험이업습니다 음식물과 섭생과 처방을가르처주시요 소아때부터 저절두 허리가 조곰꼬부라젓습니다 (通川 奮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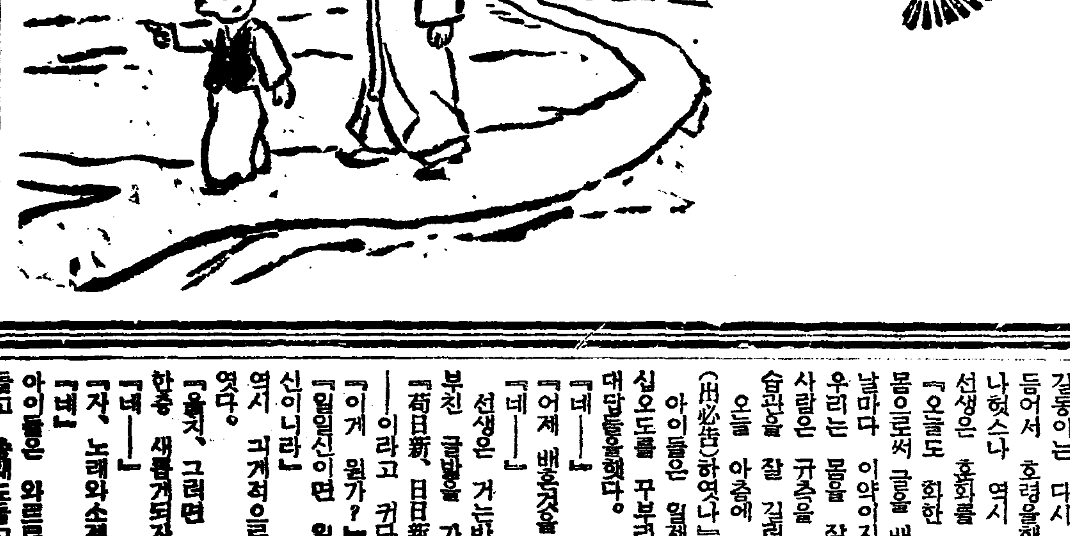
答 척추카리에스(脊椎骨瘍)로생긴 류주농양(流注膿瘍)은수술절개하지아니하고 치료하여야하는것인데 밟서 파종하엿다하오니 잘한처치되지 안한것입니다。별로히 특효약은업고 근본적으로 척추카리에스를 치료하야농이생기지아니하도록하고 종처는 매일 무균적으로 붕대교환을하야 잡균이 드러가지 못하도록 주의하는것이 긴요합니다。대체로 결핵성질환에는 특별한 약이 업고 충분한 영양과 신선한 공긔、흡족한 태양광선이 가장 적절한 자연치료이오니 경제가 허락하는대로 사나트리움(結核療養所)이나 전지료양을 하시기 권합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밥상에 오를 봄……★

우리차지

웬 어른이 길을 무르시드군요。『얘 이동리 사시는 박병철씨댁이 어덴지 알겟니』『네 그어른이 바로 저의 아저씨십니다。모서다 드릴께 저와 가치 가서요』하고 저는 공손히 그 손님을 모시고 갓습니다。

(공주사람 한어순)



月波先生 【五】

宋影 作 / 金熊超 畵

선생은 안방미다지를열고 내다보면서

『길동아 다들왓늬?』

『네!』

『자-그러면 시작하자』

『네……… 얘들아 모두나와 모두』

길동이는 여러아이들을 뜰로불러내엿다

그리고 일렬횡대로 죽-마루를향하야 느러시엿다

월파선생은 마루끗흐로 나와서 한손으로 구레나룻을 쓰다드므면서 위엄을 띄우고서 섯다

길동이는

『긔착』

『경례』

아이들은 각인각양으로 례를햇다

아조 꾸부려에도잇고 고개만 숙인애도 잇다

울퉁불퉁한 모양은 선생을노하게만들엇다

『이놈들아 례하는것이 이게무슨모양이냐 날마다 일너도여모양이냐、례하는법이 상반신을 사십오각도만을 꾸푸린다고 몃번이나 일너주엇늬? 엥히고 연놈들―― 다시、다시、례』

길동이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호령을햇다 전보다는좀 나헛스나 역시 울퉁불퉁 했다

선생은 훈화를 시작한다。

『오늘도 화한 마음과 건실한 몸으로써 글을 배호고 몸을 닥자 날마다 이약이지만은 글보다도 우리는 몸을 잘 가저야한다。사람은 규측을 잘 직혀야한다 습관을 잘 길러야한다。

오늘 아츰에 모두들 출필곡(出必告)하엿나』

아이들은 일제히 허리를 사십오도를 꾸부리고 규게적으로 대답들을햇다。

『네――』

『어제 배운것을 다-들 익혓나』

『네――』

선생은 거는방 모퉁이에 써부친 글발을 가르키엿다。

『苟日新、日日新、又日新』

――이라고 커다라케 써붓처다

『이게 뭔가?』

『일일신이면 일일신이요 우일신이니라』

역시 규게적으로 대답들을 하엿다。

『옳지、그러면 우리도 오늘 더한층 새롭게되자』

『네――』

『자、노래와소제다』

『네』

아이들은 와르르헤여저서 비도들고 총채도들고 걸네도들면서 각각 저이들마다 소제를시작한다。

노래들을시작한다

곡조는 당음(唐音)읽는소리도갓고 시조(時調)읊는소리도갓다

그보다 부인전도사들의 찬미가소리와흡사하다 길고 느리고 청승맞고 단조롭다

음계(音階)가 정확치가못한것은물론이요 장단과휴지(休止)도 엉망진창이다

노래의내용은 대개 아래와갓다

쇄소응대(灑掃應對)는 수신의 근본이니 아츰이면 일즉닐고 마루걸레치 봅시다 터리운먼지를 천리밧그로 터러버리면 우리의마음도 가을의장공이될것이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우리의 할일이니

배호건 도 익히고 익힌건또 배호지로다

송시삼백(誦詩三百)하고 불능전대(不能專對)하면 소용이업스니 언행일치(言行一致)를위주합시다

6

점심을먹고나서는 한시간식을 놀리는것도 이 글방의 특색의 한아이엇다

아이들은 대개 동산으로 올나가서들논다

뜰보다는 자유스러운 까닭이다

그러나 오늘점심은 한시간이 훨신 넘어도 아이들은 동산에서 내려오지를안는다

선생은 참다못해서 잔뜩 성낸얼굴을 처들고서 동산으로올나갓다

소리업는 봄바람은 살낭살낭 푸른풀을 흔든다 노랑나비 몃마리는 진달내위에서 춤을춘다 파리들은 왱왱거리면서 날러다닌다

그리고는 아조 고요하다 아이들은 그림자도업다

『아니 이놈들이 다-들 어듸들을갓서』

중얼거리면서 입맛을 다시엿다

이리저리 두리번두리번 하고 차저다니다가 우연 히 건너마을을처다보왓다

대추리학교 앞들에는 사람들이 둘러섯는데 아이들소리 어른소리가 작금가금 바람결에들려온다

파리소리가 쭝쭝강해서나오는것가리 아득하게 들리는모양으로 그 소리는 멀어젓다 갓가워젓다 아조 살어젓다 하다

感氣에도안걸니고 一家모다튼튼하게

아모리두텁게입고 마스크를걸더라도신체가약하면곳 감기에걸니여골난을밧지만우리가정은모다 감기도안걸니고모다튼튼하야즐겁게지나는것은 자양강장제의「양명주」를마시고잇기때문에 혈행이양호하고신체의속심부터포근포근하야음으로써 식사도맛나고날노원기가왕성하야혹독한 추위도아무러치안코이러케도튼튼한신체가되얏다

感氣가쇠여퍽으나 苦痛밧든것이겨우完快

群馬縣 田川麗次

저는最初에感氣에걸녀、그것을無여리가지治療도해보앗지만差効가업기에 困難밧든中、新聞紙上에서 養命酒란것을알고、試驗삼아買求愛飮한바、어느덧、그러케도冷하든足腰가포근포근더워지고、漸次로……理하게하엿슴으로서、感氣가쇠여足腰가冷하고머리가무겁고、밤이면잠오지안코、그때문에飮食物은엇더한것을먹든지맛나지안코、漸次로衰弱하게되야、날노身體가衰弱하여가서、퍽으나마음조리며、밤잠잘오고、따라서食慾이增進하야、元氣가旺盛하야氣分이明朗하고、暗暗하든것이光明이비처오는듯하엿다。이것은確實히조흔滋養劑를發見하엿다고、즐겨繼續愛飮한바、漸次로身體의調子가良好하고、蒼白하엿든顔色이健康으로나타낫다、밤에도깁흔잠을이루어本格的健康體로恢復되엿다고、確信하엿다。그리고看護하기에疲困하섯든어머님께도養命酒를勸하엿든바、疲勞된身體가 가장元氣가나고、아직도病後이기때문에繼續하야愛飮하고잇다。

(十年九月六日受付書翰은本人)

小瓶進呈

貴重한深山仙酒로서芳香美味하야 먹기조타는것을 紹介하기爲하야 養命酒試飮用小瓶一本을 無代로送呈하오니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養命酒本舖 出張所로 고葉書를보내주시요

滋養强壯劑로……

◆貧血冷病잇는분
◆胃膓衰弱한분
◆强腦强精의目的
◆神經衰弱잇는분
◆不眠숨갑분사람
◆呼吸器弱한사람
◆疲勞倦怠한사람
◆根氣薄弱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産前産後의婦人
◆病後恢復期 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製法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五十錢 / 大瓶 三圓 / 徳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음

注意 가짜가잇스니 專賣特許鹽澤家傳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意하시고사시옵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五三九八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秒針

金起林

小說家人와함께 거리를 거른다면 그는 실로 愉快롭지만치 지나가는사람들과 周圍의 事物들거진혜 노치안코 【돌려】보는 바람에 나는가다가도말고 도라서서 그를 기다려야한다。

그럴때마다 나는 속으로 小說家란 아마도 저러케 些少한일에조차 一一히 注意해야하는種族이가보다하고 感嘆한다。또이러한 정잔치못한 버릇을 宿命的으로 避할수업는 小說家가되는것은 상거푼生에關하고 십지안타고생각햇다。

그러든것이 그와여러번 함께걸른동안에 어느듯 나에게도 그버릇이 傳染되고말엇다。

事實 거리에서 한길에서 보고 맛나는 일과사람을 요모저모로 눈여겨보면 볼수록 興味가 솟는다。그래서 요지음은 한눈을 뭇시파려야되는 그런잔치못한버릇을 업신여기지안키로햇다。假令

【電車】안가튼데서 한꺼번에 여러男女들의 구두만을 볼지라도 가만히보면 그모양들이참말千差萬別이다。더욱히굽이 달른모양이라든지 곤을 맨맨시라든지 심지어 신코가 추어든모양까지가 하나도 갓지안타。그우혜 그것들을通해서 그임자의 性格、職業、敎養、階級、『따스』의 巧妙巧拙 家庭에잇서서의그의權威等을 想像할때에는興味는 百倍한다。

나는도만 때때로 그사람들의얼골을비교해본다。그런데 얼골에 달린것중에서 제일무수위보이는것은 그 뻔뻔한 귀바퀴다。알만해도 그것은必要以上으로 뻔죽히 올라간것가타 한동안 敵愾心까지를

【女子】들은 그것을아주 머리속에 감추고다녓는데 그때에조차 그들의얼골에서 그것이업서젓다고해서 아모도이상하게생각지는안엇다。實用上의로나 美觀으로나 그러케 소용이 신통치안흔것이라면 그것을 保存하기위하야 우리는 얼마만한 無意味한犧牲을 부담하여서 消費하는지모르겟다고생각한다 그러다가 어느날午後에 나는갑자기 귀바퀴에대한 나의偏見을 修正해야 햇다。萬君에 諸君이 正午 조금지난 太平通 큰거리를 지나면 諸君은 쉬사리 귀바퀴에 鉛筆을 걸고 양복바지에 두손을 꼭바고는 맨머리바람에 點心시간의남은 몃分을 散策에 消耗하는 수많은 辦事四階級者들을 맛날것이다。『아담』이보와 그 예의에 벌서 오늘의 【淨書】生活者들의 鉛筆을걸 便宜를 위하야 귀바퀴가 마련되엿다고는 아모래도 생각되지안는다。結局은 사람의 肉體란 하나하나가 알맛고 無識者에게도 알맞도록 마련된것갓다。그러니까 귀바퀴에는 3표의鉛筆도 걸릴수잇고 十八金金時計같도 걸릴수잇는것이다 그래서 『心臟과곰로버ㅡ』의시귀의모양으로 들은 빨간 입술은 接吻도할수잇고 아첨도할수잇고 毒舌의無限도 바탕수잇고 모함도할수잇는가보다 그러나 나는 인젠 無限하는버릇에서 遠離하게 救援을 바라야겟다。

오늘도 나는 그 버릇때문에 일을 하다말고 바로 바른편 壁에 걸려잇는 【電氣】時計를 처다보고야 마럿다。

그것은 分針以外에 방정맛게도 秒針마저 가지고잇서서 一秒一秒 지나가는것이 너무나 압흐게 내 뺨을 때린다。더군다나 나의 椅子는 不幸하게도 나의 生命의 모래알이 한알 두알 間斷업시 새여버리는것을 언제든지 처다볼수잇도록 가장 適當한 位置에 잇다。나는 다른 모ㅡ든 職業의 利益을 버리고라도 이 秒針의 奴隸에서만은 버서나고십다。요지음와서는 그것은 나의 못생각중에서 가장 主要한 자리로 뛰여들엇다 그래서 나 自身뿐아니라 내가 맛나는 모ㅡ든사람의얼골에서 조차 이問題업는 【秒針】의 壓迫을 灯달한다 오늘아침에 맡르로 나온길에 맛난 그女子의 얼골만 하드라도 이秒針의 壓迫이 업섯든들 나는 간단히 니저버릴수 잇섯슬것이다。

電車停留場에서 偶然히 맛나서 눈이 동그래진 그女子는 五年前이나 마찬가지로 美人이엿다 그러나 나는 갓내 그의얼골에서도 웬새어서 도라가는秒針을 바라보고야마럿다。

佛蘭西製、『아메리카製의『루ㅡ주』等等……비싼化粧品의 效果의會計가限度。

그것들은 암만해도 그女子의두눈자우에 歲月이 굿고간 미운 주름살을 지여버리지는못햇다

붓을쏘라는 注文인데도 放會의 불조차 쓰지못하고 나는 지금 【退勤】時間이 가까운 午後 네시의事務室에 기대서지침을모르고 달려가는 秒針을노려보고 안저잇다 그리고는 쓰다가말고 찌저버리는 原稿紙만 休紙箱에 집어던진다。그러면나는 물의注文에 應하는 대신에이모이아닌 疾病한 評論나드될가보다。

나의生活은 나의『사하라』
殘酷한 時間의 鉄騎를 달고 沙漠

찌저진原稿紙만 休紙箱에 차가는사이에
過去속에서 갈어서 차차가는나의靑春。
이옥고 忘却이라 부르는 그淸白한 掃除夫는
休紙도 靑春도 함께 쓰러가지고
歷史도 모르는 廢墟의 바다까에 내버리렷지。

―終―

能動的人間의探求

——哲學과文學의接觸面——

⑤ 金午星

3、그러면 어찌하야 人間은 그自身 客體의 一部이면서도달은모든客體的存在에 對하야 主體가 되는가？ 그것은 人間에게는 生活實踐이 잇는까닭이다 生活을 廣義로서 解釋하면 그것은 人間에게만 잇는것이 아니라 모든有機的存在에게 共有한 現象이라 할것이다。그러나 人間以外의 모든生物에게는 生活은 잇으나 生活實踐은 업다(實踐은 能動性을 意味하는 까닭이다)다시 말하면 人間의 生活은 能動的

【實】踐的인데 反하야 은生物의 生活은 受動的反復인것이다。植物의生活은 一定한 氣候 土質等에 順應함으로서만 營養된다。動物의生活은 本能과 習慣에 依하야 反復된다。즉 植物이나 動物의生活은 環境에 順應할뿐이요 그것을 變化시켜 自己의 生存에 適應시킬줄을모른다。그러므로自己以外의 모든存在에 對하야主體가 되지못한다。그러나 人間의生活은 그와反對로 能動的이요 實踐的이요 創造的이다。人間은 항상環境을 自己의目的에 適應시킴으로서만 生存을 維持한다。人間의生活도 때로는 順應的이다。環境에 依存하지안코는 살수업는것임으로 할수업는일이다。그러나 環境이 自己의 生存을 威脅하게될때에는 人間은 環境을 征服하며 그것을變革하야 自己에게 適應시킨다。치위가 猛襲할때에 動物은 消極的으로 치위를避하야 太陽쪽을 차즈나 人間은 치위에 反抗하야 집을짓고 防寒을 함으로서

【環】境을 變化시킨다。이러한意味에서 人間은 環境의 反逆者이다。人間은 畢竟해 本能的欲求에 滿足치안코 그우에서 文化的創造的인 生活을 要求한다。이와가티 人間의 生活實踐만이 能動的이기때에人間은 모든存在에 對하야 主體가 되는것이다。主體性은 能動性을 意味하는것이다。

그런데 人間의 生活實踐이 能動的인것은 人間의 生活에는반듯이 意識이 伴隨하는까닭이다。人間은 意識의 發生으로부터모든存在와 自己를 分離시킨것이다。그러므로 主體性은 이런意味에서 보면 意識性이라고도할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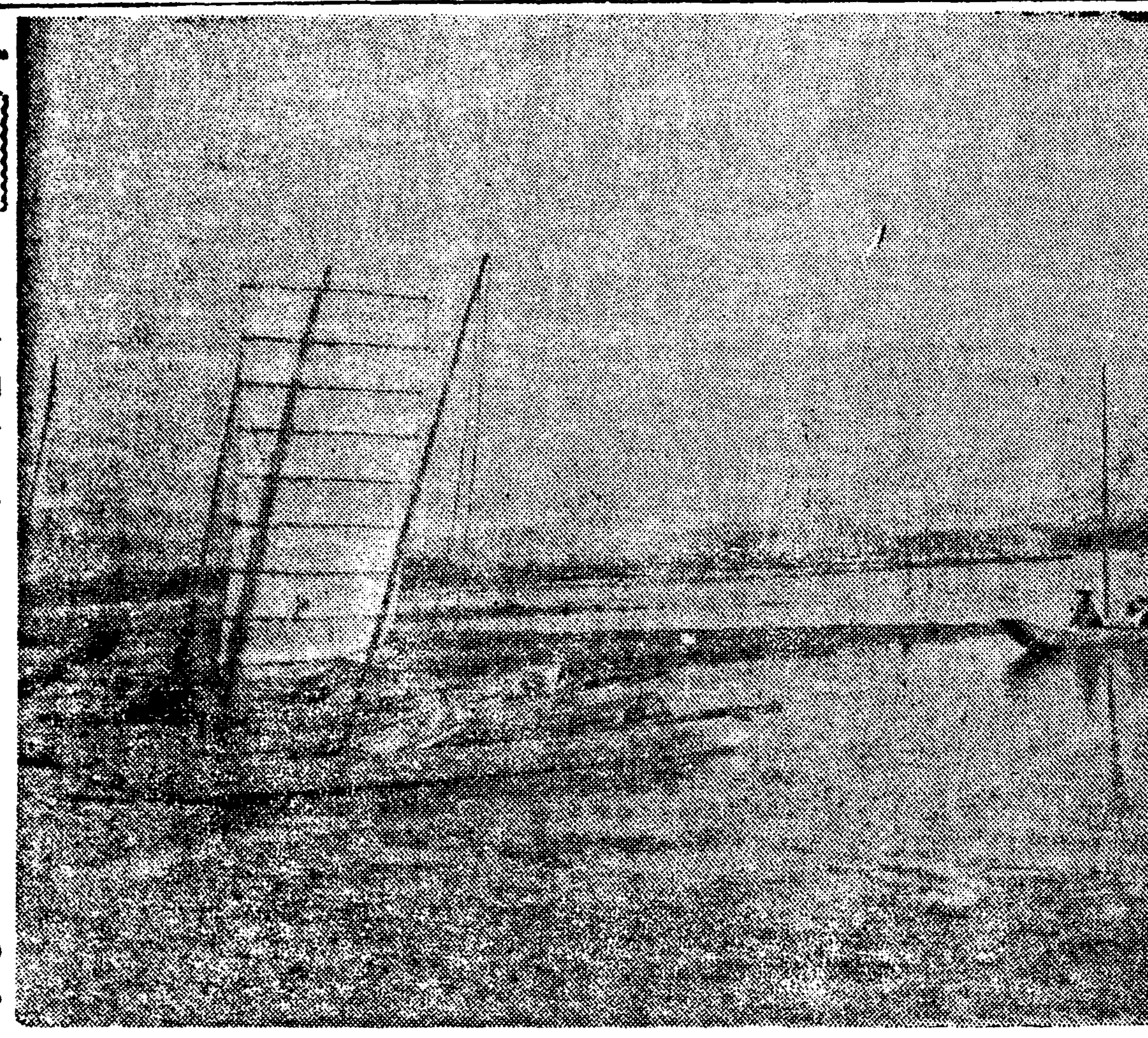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意識은 客觀을 構成하거나 對象을 産出한다는 일은바 觀念論的意識이 아니요 어데까지나 人間의 生存條態 또는 生存態度의 하나인 生存意識인것이다。人間이 自己의生存을 爲하야 外部的存在와 接觸할때에 外部的存在는 人間에게 或은 威脅的인것으로 或은 慰安的인것으로 或은 探求의資料로서 어떤問題를 提供하게된다。人間은 이外部的인것에對하야 어떤 主體的인

【態】度를 決定하지 안코는 生存할수업다 그리 하야 威脅的인것에 反抗 或은 服從하며 慰安的인것을 享受하며 探求의課題를 解決하려는 人間의 生存態度에서 거긔에 相應한 意識이 생긴다。이러한意識을 우리는 生存意識이라고한다。이生存意識이 自己의 生存을 威脅하는 外部的存在를 積極的으로 研究하려할때에 여긔에서 能動的精神이 發生되는것이다。그러므로 能動的精神은 外部的存在에 對하야 自己의生存을 積極的으로 擁護하려는人間意識에게만 나타나는것이다。

四

能動的精神은 能動的인 生活實踐에서만 나타난다。그러나人間의生活은 언제나 能動的일수는업다。웨ㅡ그러냐하면 人間은 언제나 環境에 反抗할수는업고 오히려 日常的으로는 環境에順應하지안코는 生存을

【維】持할수업는弱點을가진 까닭이다。人間의生存이 環境에 順應할때 그들의生活은 受動的이며 受動的인 生活에는 受動的精神이 隨伴할뿐이다。이러한狀態를 나는〃日常性에依한 人間性의 埋沒〃이라고 불으고십다。하나 人間의生存이 環境에 順應할때는 그實 環境도 人間生存에 順應하는때인것이다。外部的環境과 人間의 生存은 서로 抗爭하는 對立物이면서도 日常的으로는 統一되지안흘수업는일인바 辨證法的構造를 가지고잇다。이러한 對立的統一은 어느限度까지는 그대로 持續된다。그것이 持續되는 限에서 日常性에依한 人間性의 埋沒은 不可避할수업는일이다。



時調書帖 (其八)

압개에 안개것고 뒷뫼에 해비친다。
배떠라 배떠라 밤물은 거의지고낫물이미러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江村온갓곳지 먼빗치 더옥조타。

(尹善道)

漢詩

春雪—押風 選外佳作之二

桐崗考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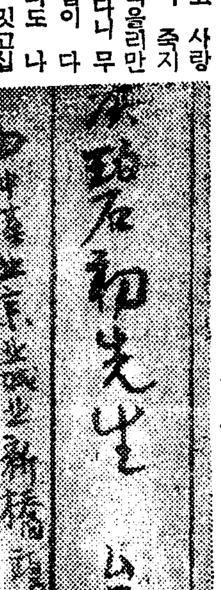
京城 李承高

春雲釀雪灑春空
簑笠還宜獨釣翁
簷間落逐梅飄蘂
草際來疑蝶弄風
重牽衰鬢添華恨
暫奏老枝擎重功
焉得消愁如許速
同胞四海解顔同

哭丹齋

碧初

丹齋가죽다니 죽고사는것 지금부터이 엇더한큰일인데 귀별도 미리안하고 슬그머니 죽는 법이잇는가 죽지못한다 죽지 못한다 나마사람이라도 丹齋가 知근로 許하고 사랑하는 터이니 죽지 못한다 말리면 죽을려만 무하다 그런데 죽다니 무손소린고 세상사람이 다 죽엇다고 떠들더라도 나는 죽지안컷거니 밋고십다 만나볼수잇는곳에 잇서서도 보지못하고 지냇스니 만나볼수업는 곳으로가서 다시 보지못하려니 생각하면 고만이다 新聞의報道와 秀凡의通寄가 나에게는 다 부지럽는일이다 丹齋와 나사이에 書信往復도 끈친지가 오래지만 인제는 아주永遠히 끈치게 된것이 전과 달을뿐이다 나에게온 丹齋書信이 적지안을터이나 모다 紛失되고 지금남아잇는것이 서너장에 不過한데 그중의 한장은 七年前 내가獄中에 잇슬때 온것을 二年後에 獄에서 나와서 본것이다 나에게온 이最後書信을 다시펴노코 읽어보니 이러



한句節이잇다

『弟는 不遠間 아마十年役所로向하야 發程할것입니다 이世上에서 다시面目으로 相逢하게될는지가 疑問입니다』

『而今에 가장愛惜하는 兩個의腹藁〃大加耶遷國考〃〃鄭仁弘公略傳〃이잇스나 이것들은 弟와한가지 地中의 物이되고 말는지도 몰으겟습니다』

이것이 丁寧한 遺書가아니고 무엇인가 이러케 七年이나 前에 미리미리 귀별하야준것을보고도 이제와서 비로소 죽지못한다 죽지안핫거니밋고십다 말하는 내가 失性한사람이아닌가 丹齋가죽엇다는데 나마사람은 얼마든지 失性하야도 조타 그書信에 또 이러한 句節도잇다

『兄에게〃한마디말을 올니라〃고 이붓이뜁니다 그러나 억지로참읍니다 참자니 가슴이 압흡니다마는 말하란즉 뼈가절읍니다 그래서 압흔가슴을틀키어쥐고 運命의 定한 길로갑니다』

永遠히 가슴에품고간『한마듸말』은 무슨말일까 이말은 정녕코 나個人에게보담도 우리들에게 부치고시픈 말일것이다 나의推測이 틀려도 틀리는대중이 멀지아니하리라 書信이 永遠히끈치게된오늘날 尋常한 往復이紛失된것도 앗갑거든 우리들에게 公開하야 조흘書信여러장이 紛失된것은 앗갑다 엇더타말할수도 업다 지금 나의 생각나는것中에 나더러 某社에서

退社하라고 勸告하는書信에는 우리의處身을 가르친말이 잇섯고 自己가 新幹會發起人되물許諾하는 書信에는 우리에게 友道를 가르친 말이잇섯다 이러한 書信을 다시누구에게서 바더볼까 살어서 귀신이되는 사람이 許多한데 丹齋는 살어서도 사람이고 죽어서도 사람이다 이러한사람이 한줌재가되다니 身體는 재가되더라도 心腸이야 鐵石과가거니 재가 될리잇슬까 그氣槪 그學識을 무슨물이태워서 재가될까 모두가 거짓말갓고 정말갓지 아니하다 丹齋더러 말한마듸 물어보앗스면 내속이 시원하겟다 간곳이 멀지안커든 나의불르는 소리를들으라 丹齋 丹齋

(寫眞은 丹齋의筆蹟)

現代文明과 電燈의發達 (二)

東電技術部 兪完昌

素이 發明한 炭素纖條는 發光體로서 覇權을掌握하엿슬뿐아니라 여러化學者가 苦心慘憺한 結果의所産인 稀土類化學의 殿堂에도 肉迫하야 酸化『토륨』『잇트룸』等의 金屬을 抑厭하엿다 一八九八年『네른스트』가發明한 稀土類化學의 發光體만이 唯獨炭素纖條에 拮抗하엿스나點火裝置의 複雜等여러가지 不備한點으로 炭素纖條에게 敗戰을 當하고 惜敗 市場에서 完全히 【驅】逐되고마럿다이에炭素電球는 獨步 炭素最高熔融點大旅를비겨들고 넓니世界市場에 君臨한것이다 그러나 一便으로는 여러發明家間에는 炭素以外에서 熔融點이놉흔 發光體金屬을 研究하려는 機運이濃厚하엿다

四、電燈의靑年時代

一八九八年『우엘쓰빠하』氏는 苦心焦慮研究한結果 金屬發光體를 完成하엿다 氏는『오쓰뮴』金屬을 纖條(電燈의心)로 電球를 製作하엿스니 이發明은 實로發光體의 一大革命이엿다 世界에 君臨하엿든 炭素纖條眼前에 一大不安을던지고마럿다。이것이今日에 旺盛한 『탕구스텐』金屬纖條의

【開】拓者일것이다 그리하야 모든科學者들은 纖條研究를 炭素에서떠나 金屬으로集中하엿다

一九〇四年 果然『유스트』『하나만』兩氏는 『탕구스텐』纖條製造에 成功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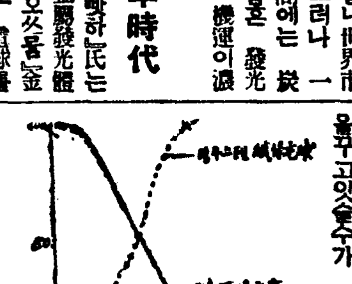
『유스트』『하나만』兩氏의 製造法은 『탕그스텐』粉末을 砂糖溶液에 混和하야 線으로하는것이요『케렐』氏의 製造法은 膠質狀『탕구스텐』에서 純粹한 金屬纖條線을 맨드는것이다 前者는 米國G E會社에서 後者는 獨逸『코쯔』會社에서 各各莫大한 金額을 드리여 必死의研究를繼續하엿다

五、電燈의壯年時代

맛침내 炭素纖條의 王者의 榮譽도 暗黑이 當面하엿다『탕구스텐』의 出現으로 安閑히 옛꿈을꾸고잇슬수가 업섯다 이에 炭素纖條도『탕구스텐』纖條에 對抗하야 苦心研究한結果『쎄루로ㅡ쓰』纖條를 發見하엿다 이『쎄루로ㅡ쓰』의 研究過程은 今日에 隆盛을極한 人造絹絲發明의 端緖를 暗示하엿다 今日의 人造絹絲에게對하야 炭素纖條는 實로

【偉】大한先驅者엿다 이로부터 炭素纖造는 一步進하야 金屬化하고마럿다

即一九〇五年『호이트늬ㅡ』氏가 發明한 金屬炭素纖條 그것이다



第三圖

『호이트늬ㅡ』氏가 非金屬인 炭素로서 金屬化하여가지고 强烈金屬纖과雌雄을다투웟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人間의힘의 偉大함을다시한번 늣내지아니할수업슬것이다 그리하야 當分金屬化炭素電球는 金屬纖條와 對立하야 照明界의霸權을일치아니하엿다

六、炭素纖條의敗退

炭素纖條와 金屬纖條가雌雄을 다툰지 已久에 炭素纖條는 纖纖한勝을남기고 無情히炭素纖條의 沒落을招來하엿다

『탕구스텐』纖條는 電球로서의 能率이 炭素電球보다 三倍나 增加하엿고 三十倍의 壽命時間을 增加하엿다 炭素가 如何히 金屬化하야『탕구스텐』에 對抗한다하여도 이事實만은 엇쩔수가업섯다 때마춤 照明의 普遍은 電力消費量이 低小함이 渴望되자 照明界는 斷然『탕구스텐』電球의 出現을 歡迎하엿다 그럼으로 炭素電球王座의 基礎는 完全히 動搖되고마럿다 一九一八年頃『탕구스텐』에게

【驅】逐되여가는 炭素의影姿는 살어젓고 그地位는 完全히 顚倒되고 마럿다 炭素電球의 榮耀는 槿花一朝의 꿈으로사러지고 過去一世紀에 亘하야 慘憺이極한 이發光體爭霸의 歷史도 一段閉幕되고마럿다 以後里程幾歲『탕구스텐』도 進步改良을 꾸준이繼續하야 今日照明界의 麗見白熱電燈球의 萬歲가 되고마럿다 『탕구스텐』電球는 또다시 改良의 急追를 늦추지안코 眞空電球로부터 今日의 瓦斯入電球를 完成한것이다

이電球發明과 關聯하야 現代文化發達에 頭角을놉히한 다음과가튼 두가지事實을 우리는忘却할수가 업슬것이다 即電球와 眞空『펌프』와의關係 電燈纖條와 人造絹과의關係 이두가지 일것이다

戲曲 春香傳 (三)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春香母 참 소견업는애지。어쩌려고 저럴까？ 정신을 못차리고ㅡ

(春香母 방문을열고 房안에잇는 春香을 드려다보고)아약 춘향아 그러지말고 내말좀 드러보아라ㅡ

春香 (도로 문을 다치며)에그 그만 두어요。웨 이러오 아주머니！

月梅 (엽헤서 보다가 화가나서) 에그 비러먹을년！ 저년은 그저 그 리가놈한테 재정신을 홀딱 빼키고 말엇서！ 그저 이 놈은년이 못저비를 해죽여지 해야겟다。

春香母 에그 성님 저게 뛰어오는것이 방자놈아니오？

月梅 올치 방자놈이로구낭 저놈이 서울서무슨 편지나 가저왓겟다。

春香 (房에서 뛰어나오며)어머니! 방자가 왓소？

月梅 에그 요년보게！ 편지라니까 눈이번쩍 띄나베！

(房子 뛰어들어온다。신연하인으로 서울갓다오는길임으로 옷가든것을 가추엇다。房子뒤에는 香丹이가 따른다)

房子 (들어오며)아즈머니 래평들 하오？ 에그 춘향아씨는 정경 얼골이 죽어나는구낭。

月梅 이놈아 먼길에 밥스덧이나 안낫니？

房子 천리 서울도 자주 다니니까 무러닉이나든것 가트오

春香 너는 팔자조타。서울구경이 이번으로 몃번재냐？

房子 말마오。이런맛으로 구실도 산답니다。

月梅 그런데 이놈아 서울 리가놈이 뭇엇 안부하드냐？

房子 부치기는 무얼 부처요？

月梅 아니이번에도 도한푼 이러란말이업담？

春香 닥장은 바려왓지？

房子 닥장은 커녕 내가 써준 편지도 못전하엿다。엇다。네 편지나 도로 차저가거라。(허리춤에서 편지를 내며 春香에게 준다)

春香 (편지를 바다보고 어이업서) 아니 이럴이 웬일이냐？

房子 더 비렬것엇다。두밥말고 너는 다른데 시집이나 가버려라。

月梅 이놈아 그러케 맛도 끗도 업는소리말고 어찌된 연유를 대여라。

房子 연유를 댈터이니 드려보오。내가 서울에다은 그다음 다음날 삼청동 막바지 구관사스도댁을 차저갓지오 그랫더니 어듸를 이사를 하엿는지 그집에는 다른사람이 들엇더구만！

春香 무어？

房子 그것 뿐인가요。어듸서 들으니까 리몽룡은 작년가을에 어듸 다른데로 장가를 드섯대。

春香 아니 그게 웬 말이냐？

房子 그러니까 그서울놈 생각은 아여 말란말이야。

月梅 이놈아 정말이냐？

房子 두번 물으면 입더시 다옹。거짓말이면 서울까지가서 웨 인놈이 이편지를 안전하고왓겟소。그것만 보아도 알것아니오。

(春香과月梅는 어이업서말도못한다)

春香母 허허허……나는 벌서 이리 될줄알앗소。공연 양반의 집 자식이란 기생첩 열이운개 못하면 행세를 못하는법이거든。

月梅 (春香에게) 이밥복한년아 나가거라。네팔나안보고 내팔너 안보이겟다。이년석 나가거라。(春香勸지안코안젓다)이년 대뜸 못나가겟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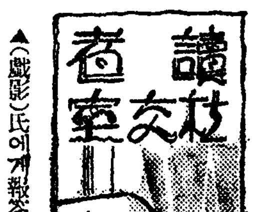
春香 우리도련님이 그럴리 만무하오。

月梅 이비러먹다 뒤질년아 아즉 재정신이 안돌아 와나베 (木枕)을매다때린다) 이년석 죽어라！

春香 나는 온전하ㅅ사람을 못미덧스면못 미덧지 도련님만은 밋소

月梅 이망할년아 그놈한테 그렁케 속아도 아죽 정을 안다신단 말이냐！ 이년아、녀하고 나하고 죽고보자。이망할년아！(春香을뜻고 떰빈다)

春香母 (말리며)웨 웨 이러오성님。



▲(戲影)氏에게報答함!!

親切하신(戲影)兄이여 압흐로만히指導하여주시기를바라며 小生이願하든憲法、民法、民事訴訟法을 無料로주신다하오니 참으로 感謝합니다

本紙社交欄을 通하여 兄에住所와芳名을明記하여주시면 直接問議할意思입니다

京城櫻下洞一〇九 河榮福 生

▲東忠煥兄에게 兄님이 글을 보시게 되올는지요？만약보시게되면 요다음부터는 住所를 꼭써서 片紙하시기를바랍니다

宜川 張信堯

▲어머니되는 제의잘못으로 게집아해를 음正月初五日에 일허버렷사오니 보시는분이게시오면 社交室이나 或은 左記下宿住所로아르켜 주시면감사하겟읍니다

原籍黃海道谷山郡桃花面月溪里 정내동 女兒名安淑瓊 今年十一歲

일흔場所는 府內堅志洞이오며 아해는얼골이 조금푸석푸석한편 이며 아직서울에익지못합니다

京城府嘉會洞一四五 金德輝

▲二月十八日新義州林琮秀氏에게 에스페란토學習書를 親切히 指示해준 一에스페란티스토氏여 아직도 에스페란토學習中에잇는 이者에게도마몬敎示가 잇서주시오 爲先言語의技術的向上을 위하여 에스페란토語로서 번첨通信해주시미어떠소通信을해주실나면 左記住所로直接해주시오

平南中和郡看東市 趙炳七

▲乞採用 本人은二十三歲에獨身男子로서 本籍은黃海道安岳이오며 中學校第四學年을修業하고 市內에서 商店을經營하든바 失敗하여 職業을求하오니 有意하신분은 採用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希望、事業會社、各商店、或은家庭敎師 (家庭敎師는 普通學校第六學年程度以下 또는中學校一、二學年에 數學敎授等)

新刊紹介

▲湖南評論 二月號 京城府崇四洞二〇六 湖南評論社京城總支社發行 定價二十錢

▲兒童文學 二月號 東京市麻布區市兵衛町二ノ六一 鴻居書房發行 振替東京一二二三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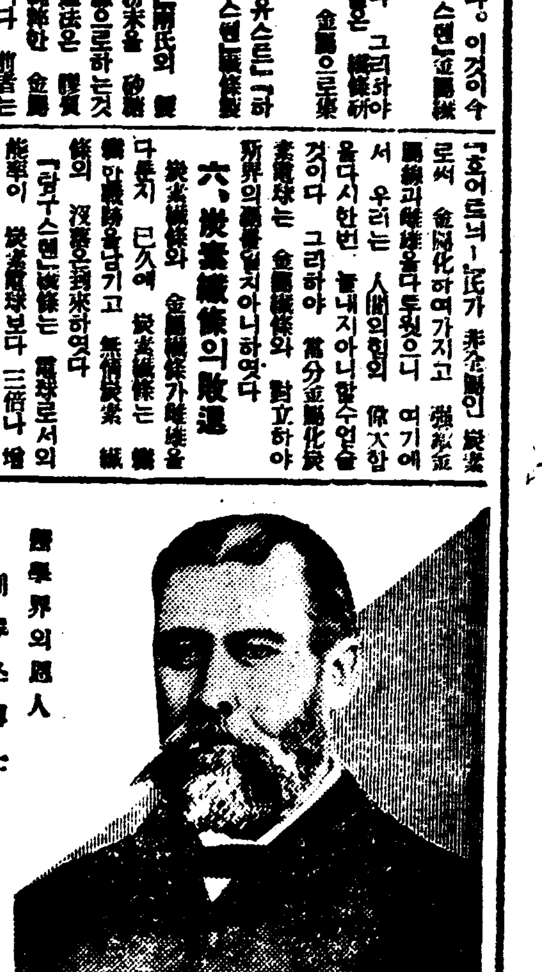
▲高麗時報 第三十七號 開城府北本町三九六 高麗時報社發行 振替京城二四〇九三番 定價五錢

▲朝鮮實業俱樂部 二月號 京城府寬勳洞一〇八 朝鮮實業俱樂部社發行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아이동무 二月號 平壤府新陽里二九 아이동무社發行 振替京城一四八〇番 定價五錢

▲運輸界 二月號 京城府花園町七九 運輸通信社發行 振替京城二〇九七六番 定價五十錢

感氣 警戒！



醫學界의恩人 베루쓰博士

貧血과冷毒이原因되는 梅毒疾患의續發

治療에는保溫과抵抗力을强化 血行을旺盛淨化하는ベルツ丸

感氣流行時에는、곡그에따라서、梅毒患者가續出한다 이것은 永年間潛伏된梅毒菌과 壯年時의治療中斷等이原因되야서、感氣로된發熱、貧血、冷症이드듸여菌毒을誘發식힘으로 이때에充分히警戒를要하고 또專門家의診察을請하거나、또는ベルツ丸과가치世上에信用잇는驅梅內服藥에依하야、徹底的治療가必要하다。

全國을通하야 近年에드믄嚴寒이 襲來하야서病弱者는勿論이며 健康者라도 相當히이런酷寒에는뜻도하지안흔 感氣에걸여서 全國的으로 病者가續出한다고하는狀態에잇다。

普通人은 感氣라고하면 別로重하게生覺지안흐나 이만흠危險한 病은업고、萬은이感氣가 導火線이되야서、모든疾病을 誘發식히다고하여도 過言이안이다。

特히、梅毒性疾患이 언제나感氣流行에比例하여서 激增되는것은 即感氣가 原因되야서 潛伏하엿던梅毒이 輕重症을 不問하고、忽然히表面化又는再發、惡化或은 死亡되는일이잇는까닭이다。

梅毒患者의症狀

은最近과가티酷寒이 계속한다는사람보다더冷하여지는것이普通으로、特히手足과腰部가쑤쑤시고때때로神經痛、류마치스、關節痛症狀을 일으키고 더구나이러한冷毒、貧血에 苦痛을 當하면서도、頭部에는 늘熱氣가잇고、朝夕으로偏頭痛에苦惱하고 便秘나기쉽고、不快한氣分이계속되고 特히 潛伏期에잇는 患者라든지 壯年時代의 梅毒菌이病原히治療지안코 中斷하고잇는분에는 꼭나타나는일이다。

治療法으로서는

이런境遇、再發과 惡化를豫防키爲하야도 또體內血液과內臟에潛在되는 梅毒菌을 殺滅排除하는데도驅梅內服療法이理想的이라고한다그것은가장그適應藥으로되지마는ベルツ丸과 가튼것은 血液中의 菌毒을 排泄淨化하는것은 勿論服用에 따러서顯著히保溫作用을增加식힘으로寒冷에不少 流行의境遇에는感染되는일이不少하며、도리혀血液循環을旺盛케하는結果抵抗力을强케하고、胃腸을强化하며健康한皮膚를構成케한다

梅毒에皮膚病은

必然的으로따르는症狀인바、要컨대이것은、皮膚에營養이缺乏되야잇는까닭도잇슴으로、이것이完全히强化되야잇스며假使顔面其他에 腫氣가난다하드라도쌜이낫고、또 未然에防止할수도잇다。ベルツ丸은即前述한바와如히皮膚强化의藥質作用이豐富하게되고、모든梅毒性의疾患에適當한良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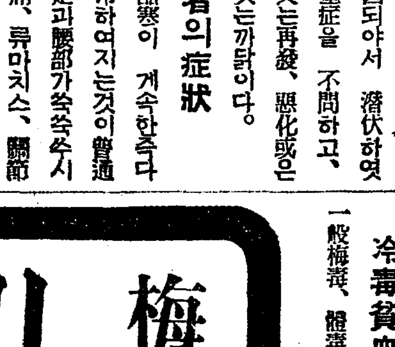
冷毒貧血은勿論

一般梅毒、體毒、痔毒、橫痃、瘤瘍의皮膚病、여드름、부스럼、遺傳梅毒、腦梅毒、脊髓癆、고무腫、神經痛、루마치스、動脈硬化、便秘等모든梅毒에有效한것이이ベルツ丸으로、계속說明한즉、늘感氣에걸니기쉽고、發熱하기쉬운분이라든가、죽근사람가티冷冷한분은 곡血液中의菌毒이禍根이되는證據임으로이러한症狀에苦惱하는분은 주저말고ベルツ丸으로毒을掃滅토록하라。特히ベルツ丸은藥價도大端히싸고創始以來도한信用잇게한 良劑이여슴을玆에並記하야각各位의實驗을願하는바이다。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梅毒、體毒、痔毒、橫痃、淋毒、脊髓癆、腦梅毒、遺傳梅毒、류마치스、動脈硬化症、胃腸病梅毒性부름、여드름、糖尿病、肝硬化症、梅毒性便秘等히梅毒性疾患에良効잇슴。

藥價 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 百六十日分廿圓・二百六十日分(德用)卅圓

送料內地各十五錢外海 四十二錢・代引十五錢增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滿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浪花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黃昏 【23】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취직 (四)

려순은 오늘이야 동생 기순에게 편지를 썻다。

전번에 고약을 보내여 편지를 할때에는 참으로 말할수 업는 침울한생각에 잠겻섯다。

그리고 경옥어머니의 태도가 갑재기 더낫버지는때에는 자기나동생의신상을 생각하고 여러밤을 뜬눈에 새엿다。

그리다가 다행으로 취직이되엇다。생각가해서는 편지보다금시 날아가보고십엇다。

그러나 한편 무엔지 모르게 어드운 생각이 또 낫다 아모리 취직이됏다하더라도 동생을 꼿다려올사정은 되지못한다。따라서 동생의처지는 별안간 밧귀여질 까닭이업섯다。

멧푼아되는 월급에서 밥값치르고 또 경옥이집과 경재와 준식에게 흑은 인사로 흑은 빗으로 떼여주고나면 멧달동안은 용도한푼도 쓸여유가 잇슬것갓지안헛다。

뿐만아니라 별안간 크나큰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와는 너무도 거리가먼듯한 사람들 틈에 끼이게되고보니 어쩐지 기분이 약해저서 자연히 마음이 안정되지못하엿다。

해서 이때까지 동생에게도 붓을 들지못하엿다。

그러나 누이가 졸업햇다고요 사이는 더욱이 소식을고대하고 잇슬 동생을생각하니 무심한자기가 죄스러히 생각되엇다

해서 긴녑을 필하자 곳 붓을 들엇다。

자기의사정을 대강적은후 동생의형편을 뭇고 지금은 사정이사정이니까 얼마동안 기다려달라는것과 다달이 다문 멧푼씩이라도 보내여주겟다는 말을써서 다시 읽어보고 봉투에 너엇다。

『려순씨!』

피봉을쓰든 려순은 이런말소리를듯고 얼른 문을열엇다。

『아이 선생님 오섯서요』

려순은 방안을 휘둘러보며

『들어오십시요。아이、방이 어지러워서……』

하고 무의식하게흐르는 반가운후숨을 손등으로 가리엇다

『발서 한번 온다면서……』

하고 경재는 방에 들어서며

『과히 불편하지나 안습니까……?』

하고 권하는대로 자리에 안는다。

『네 별로……』

『회사는 과히 밧부시지 안습니까?』

『네……』

『몃시에 나오서요?』

『요새는 아직 첨이돼서 다섯시가 넘어야 나오게됩니다』

『다섯시요! 어이구 끈하시겟군……공부 허실 여가나 잇서야 헐텐데……』

『그거야 제생각만 잇스면 밤엔들 못하겟습니까만……어듸 그러케됩니까。게울러서』

하고 려순은 빙그레웃다가 문득 생각이나서

『참 선생님、신문을 보내주서서……』

하고 경재를 처다보앗다。

『네、뭐……』

『바루 스무닷샛날 밤이에요。웬사람이 밖게서 박려순이 잇습니까?……하고 찻겟지요。어떠케 놀랏는지요。아무도 차자올사람이 업는데 분명히 박려순이라고 하기에 공연히 가슴이 쩔렁햇서요』

하는 려순은 말에말삼아、자기를차자올 아모도 업는것을 경재에게 알리게되는것을 스스로만족히생각하엿다。

『아、그날 늦게야 말햇드니 잇흔날 조간부터 가저왓섯군요』

『네、그래서 나가봣드니 신문배달부겟지요……아、이방이세요? 하고 신문한장을 내여노코 가라하게 웨것이나고 물엇드니……』

하며 려순은 웃음으로 미안한뜻을 표하엿다。

『뭐、보일건 업서두……그래두 각지사정을 알려면 볼가를 아니볼수 업스니까요』

『아이 미안합니다。그래도 전 선생님이 보내주신건 생각지못하고 웬거나고 안바드라고 햇서요。햇드니 발서 돈까지다……』

『나도 멍함이라두 써보낼가하다가……』

『아니에요。저도 아주 생각못한건 아니에요。그래도 그저밧기가 어쩐지 미안해서 어떤분이냐고 물엇드니 모습을 말하는게 선생님이분명하드군요』

『뭐라구요?』

『얼굴이하고 눈섭이검고 머리가 고실고실하고 키가후리후리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웅글드라나요 또……』

하며 려순은 다시 경재의얼굴을 눈여여보며 상글상글 웃고잇다。

『그녀석 날 데릴사위 상을텐가 똑똑히 봐두엇군요』

하고 경재도 웃다가

『회사에서보지는걸 이중으로보실필요가업것기에 그걸보냇습니다……』

하는 경재의 조고마주의에서 려순은 커다란정을 원홀수잇섯다

朝鮮映畵十五年

初創期에서現在까지 走馬燈에비친記憶 ⑥

白夜生

나는 映畵脚本인가 무엔가 未熟한것을 몃번이나 내여노흔사람이요 또 映畵人과 자조맛나야하는職業을가진 사람으로 어느때는 俳優라면 너무도平凡해 보히는때도잇고또 어느때는 朝鮮이 아니고 다른곳에 태여낫스면 제格에맛는 훌륭한演技를發揮할수잇스려니하고 생각해 본사람도만타

나는 姜弘植、徐月影、李慶善、沈影、羅雄、李錦龍을 性格男俳優로꼽을수잇스면 金玉、文藝峰、卜惠淑、金明淳、金靜淑、等을 性格女俳優에 각가웁다고하겟스며 金一松 金蓮實 申一仙을 平面的으로 살수잇는 女俳優라하고 십다 도대체 朝鮮映畵에서 名俳優를차저낼만콤 映畵가 크게 發達하지못햇스며 그『사람이면』할만치 그이들이映畵에 만히나오지안헛스니 即映畵數爻가적으니 거기서나는 特別히누구를 조하하오하기가어려웁다 그런中에서 내가 이이들은 조흔演技를 보힌사람이다 한것은 아즉말하려하지안는다

아프로 映畵가 繼續해나올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조화하는 사람이발컬것이요 따라서 조화할사람도 만히나올것이다 그러나 오래年條를 싸흔 사람들을 輕視해서는안된다 오래하면 된다、그래서 나는 오래한사람을 조화한다

그런데 새로히 잘指導하면 將來가 잇서보히는 少女가 잇다 『迷夢』에 나온 少女다 그러나 이 少女를 잘살려보자면-하고 깁히 생각하는사람이 아니고는 赤是허잘것업는 女優를 맨들지모른다

끄트로한가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하겟다 舊友具本雄氏가 날더러 卜惠淑과카추샤를 해보랫스나 그럴機會가 업섯스니 섭섭한일이요 나는 具本雄氏하고 故李月華가 지금사라잇섯드면 『카르멘』을 한번해보시는데 具兄은 『동、호제』가되고 李月華는 『카르멘』이되엿서드면 하는 우스운 空想을하엿다

×

안종화(安鍾和)씨는 부산의영화제작소가 께여진뒤 서울로와서 신선한 생활을 하여왓다 그리하야 다시 윤백남씨와 『영화연구소』비슷한 것을세우고여기서 리화、서광제、김유영제씨와 연구하다가 빈가(貧街)등두어편의 영화를 맨드는동에 안종화씨는 이상제씨와 헤여지게되여 다시 안씨는 고독히지냇다 그리다가 『꼿장사』라는 영화를제작하고는 평판이 조치안허서 우울한날을 보내다가 『노래하는시절』을 제작하야――(포시밀림이나) 조금 회복된 세음이엿지만 또이불우한 안씨에게는 긔회가오지안헛다

그리다가 리원용(李源鎔)박연(朴淵)량씨의 주선으로『청춘의 십자로』를 제작하게 되엿는데 먼저 고향(故鄕)이란 영화에 방한준(方漢駿)씨가 메가폰을 들다가 개인의 사정과다로 관계를 끈차 안종화씨가 『청춘의 십자로』를 제작하야 한참가을에 빗방울가리 조선영화에 주린 관중들은 대갈채를하엿다 사실『스토리-』가 조선에서 잇슬수업는곳이 잇섯스나 그영화는 때가 버슨데가 잇는듯 하야 여기에만도 관중들의 애호를 바든것이다 그래서 조선영화 흥행성적으로 보아 조흔편이여서 안씨의 영화계에잇서서 지위가 확실해 젓스나 조선영화계라 또다시 곤궁한생활을하엿다 그리다가다시 리원용씨의 주선으로 『은하에흐르는정열』을 제작하엿는데 이것은안씨를 배반한영화가되고마럿다 여기서 안씨의 고민이 컷슬줄안다 물론 거기에는주위의사정이 그러토록맨든것이겟스나 그영화가 말하는것은 안종화씨도 귀를기우렷슬듯하다 이리다가 이번 역습(逆襲)이라는『폭갱』영화에서 리금룡(李今龍)과라제씨의 조혼연기를 동원시여서 영화감독수법상 업마가의 창상을보혀주엇다고할수 잇슬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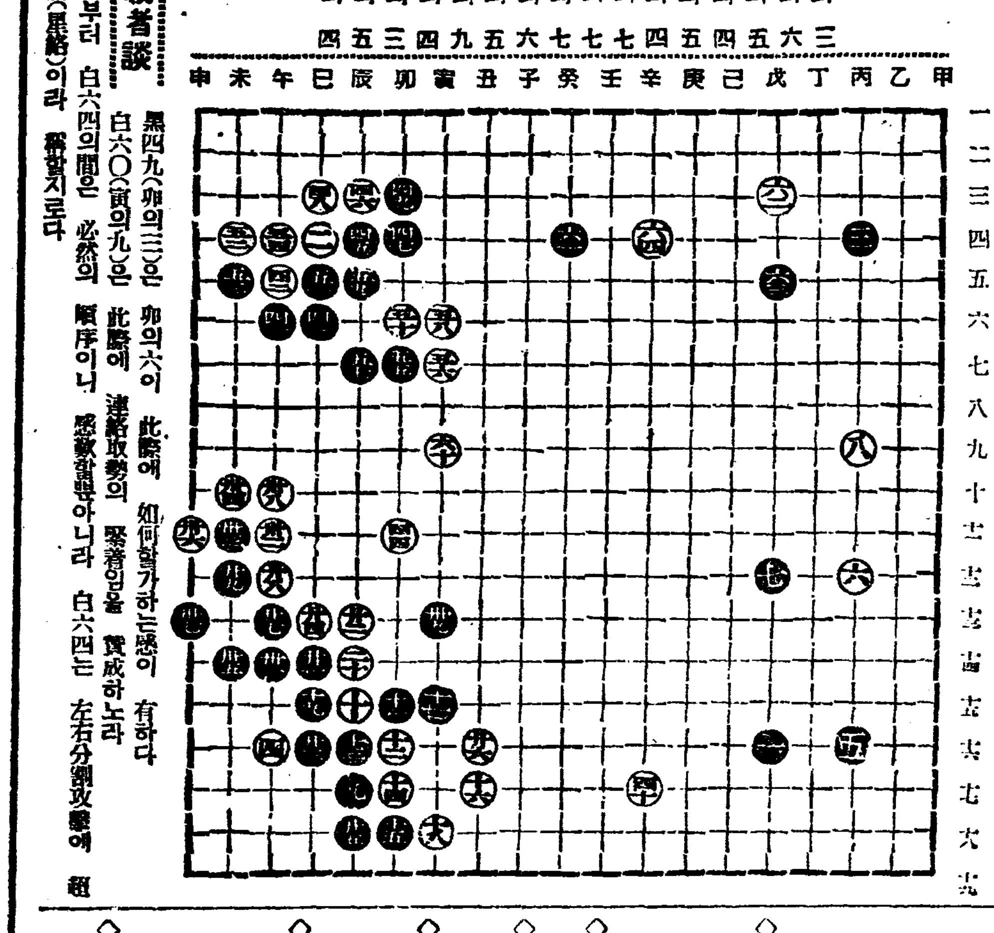
모던騎士道 쪼-지、라프트와쪼、베네트主演으로製作된콜롬비아映畵

圍碁對局譜 =4=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 權秉郁

●四九 卯의三
○五〇 卯의六
●五一 巳의五
○五二 未의四
●五三 未의五
○五四 午의四
●五五 卯의七
○五六 寅의七
●五七 辰의七
○五八 寅의六
●五九 辰의五
○六〇 寅의九
●六一 癸의四
○六二 戊의三
●六三 戊의五
○六四 辛의四



◆觀戰者談

黑四九(卯의三)은 卯의六이 此際에 如何할가하는感이 有하다 白六〇(寅의九)은 此際에 連絡取勢의 緊着임을 贊成하노라 黑六一로부터 白六四의間은 必然의 順序이니 感歎할바아니라 白六四는 左右分割攻擊에 超然한碁筋(黑絡)이라 稱할지로다

라디오

二十七日(木曜)

◇午後六時 童話劇 〃黃金〃全二景 ……配役…… 百合어린이會員 指揮 金順禎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國語』 田川孝雄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 (第二回)『民談童話篇』(二) 崔南善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楚漢歌』二、唱劇調『春香歌中御使出途하는데』 宋萬甲 鼓手 池龍成

◇同八時三〇分 音律 一、步虛子 二、別羽調打令 奚琴 趙幸石 大笒 金一擧 細笛 李點龍 杖鼓 金一宇

◇同九時 라듸오·드라마『吳越同舟』全四景 (配役) 孟虎叔…孟失明 金昌基 白郞…柳鄭綾 …金處乙 朴大進…高峰 序詞役…金鍵 서울라듸오·드라마同好會 演出 洪露街 效果 鄭鎭業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이야기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同八時 (東)라듸오·드라마

◇同九時 (大)大衆物語

二十八日(金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令 三、신아위 四、굿거리 大笒 方龍鉉 細笛 韓成俊 奚琴 金德鎭 杖鼓 池龍九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어린이의遊戲와指導〃 徐恩淑

◇同六時 童話〃우애깁흔공주〃 金奉仁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算術』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 (第二回)『民談童話篇』(三) 崔南善

◇同八時 室內樂(絃樂四重奏) 一、안단테…뎃리스드르프作曲 二、리-ㄹ…빠하作曲 三、안단테 칸타빌레……하이코우스키作曲 四、夜曲…하이든作曲 五、軍隊行進曲…슈-버트作曲 東京絃樂四重奏團 第一빠이올린 水口辛曆 第二빠이올린 箸川仙三 비올라 森乙 첼로 澗井悌介

◇同八時三〇分 海州念佛外 一、海州念佛 二、자진念佛 三、방아타령 四、月下懷抱 五、노래가락 六、창부타령 張一朶紅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九時 連續對談『金 鑰』(一) 庾秋岡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 어머니의時間

◇午後〇時〇五分 琵琶講談

◇同一時(東) 婦人의時間

◇同一時四〇分(東)小學生의時間

◇同三時一〇分(東)敎師의時間

◇同六時 기타ー獨奏와二重奏

◇同七時三〇(東) 趣味講座

◇同八時(東) 室內樂

◇同八時三〇分(東) 義太夫

◇同九時(大) 大衆物語

二十九日【土曜】

◇午後〇時〇五分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興打令 四、개고리打令 李素香 卞眞紅

◇同三時一五分 衛生講座『人體와寄生虫』 李炳南

◇同六時 童謠獨唱 一、고요한 강까 二、자장가 其一 三、네눈방울 四、순이무덤 五、자장가其二 六、서울구경 七、물새발자욱 伴奏 朴哲姬 作曲及指揮 柳基興 綠星童謠會終團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國語』 田川孝雄

◇同七時三〇分 女子專門學校卒業生에게『希望』을 뭇는座談會 司會 黃信德 出席者 京城保育 崔善愛 中央保育 李福姬 女子商業 黃善汝 梨專文科 林敬愛 同 家事 方仁道 同 保育 崔微涉 同 音樂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길軍樂 崔貞姬 洪笑月

◇同九時 連續古講『金鑰』(二) 庾秋岡

☆曆☆

二月廿八日(金) 二月舊辛卯小 (六日) 庚辰·金·鬼·滿

●祭祀에宜함
●望六日(舊十三日)
●春分十八日(舊二十一日)

將棋名手對局譜 (七)

本社主催

漢先手 第一兵 李在鳳 對 楚 金漢榮

◀六十手圖▶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一					包	漢	包		
二				馬	士	士			
三									
四	象			象	兵	象		車	
五		馬			車		兵		
六	卒	包							
七	卒		包	卒	象			卒	
八					包				
九					士	士			
十					將	包			

◀七十手圖▶

戊五車—丙五
丙七●—乙五打馬
己四象—辛七打卒
己十●—己八將
庚五兵—己五
辛四●—辛七打象
丙五車—乙五打馬
戊八●—戊四打兵
戊一包—戊三
辛七車—辛一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一						漢	包	車	
二				馬	士	士			
三					包				
四	象			象	包				
五		車				兵			
六		包							
七		卒		卒		象			
八						士	包		
九						士	將		
十						將			

チミツシン

지 밋 신

기침에잘듯고 먹기좋은약

百日咳…氣管支加答兒…咽喉炎
밧든기침…천식…만성담·기침
호흡겨병으로 인한기침에……

어린애의기침은 감기、폐염、백일해、홍역의 위험신호입니다 하로밧비기침에잘듯고 먹기조흔『지밋신』으로곳처주십시요

백일해·홍역

기침병중에서도 가장 고통이심한 백일해、홍역의특효약으로써구미각국에서 유명한「지미草劑」의대표적제약으로 적확한효력이 잇슬뿐만아니라 맛이조코 먹기가편함으로 아모리약을실허하는 어린애라도 잘먹게됨으로 더욱 유효하오며 더구나 흔이 보통기침약에 대개석겨잇기쉬운 사람몸에 해로운 극약성분과마취성분이 조곰도 석겨잇지안음으로 몸이약한 어린애에게도 아무 부작용의염려업시 절대 안심하시고 사용할수잇는약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림상치료에사용되야 놀칭찬과추천을밧고잇는약으로써 백일해갓치오래 쓰는병의 치료약의최고지위를 점영하고잇는약이니 초기에사용하시면완전히예방이되며 병의진행중에사용하시면 경과를빨으게하고 고통이심한발작과 구토와쇠약을방지하며밤잠을잘주무시게만들어줍니다

밧튼기침·천식

조선은 기후와토질관계로 특히 밧튼기츰、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 담·기츰이만흐니 지금까지에 여러가지의약을써 보세도 별다른효험을 엇지못하시든분이「지밋신」으로 만흔 효과를보셧다는 칭찬과감사로 환영을밧고잇사오나 그것은「지밋신」이 조선사람의체질에 꼭맛는까닭이며 위장에고장을일으키거나 입맛을업게하는부작용의염여가업시 속히병근원을다스려서 밤잠을잘주무시게만드는쌔문입니다

어느가정에도 꼭한병식준비하시사

기침을하거든한숙갈…잠재일때 한숙갈식…사용하시면 잠을잘 자게되고 자는동안에 병증세의 악화를 방지하고 쾌히 건쾌를빨으게만들어줍니다

―귀여운보배―아드님 따님을기르시는 부모님께―백일해의류행기에는「치료보다 예방」이라는말과갓치 꼭「지밋신」을한숙갈식 먹이시사 미연에 예방하여주시기바람니다

藥價……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酷寒과冬旱餘毒으로 慶南에麥凶難免？

보리싹이대개어러죽어버려 農家에서는再播着手

【釜山】경상남도내의 맥작경작지는 십팔만구백여정보로 그수획도 약이백여만석을 돌파하얏섯는데 금변도의 맥작성적은 거년에 드문혹한과 동한(冬旱)으로 맥엽이 동결되어서 좌이자라지못하야 작년도수확에 비하야 약사십만석의 감소를 예상하게된다함은 긔보한바인데 그후약일개월이지낸 아직까지의 연 동한이 계속하야서 이대로간다면 그동결된맥엽은 영원고사하고말것이여서 작변 수획에 비하야 약팔할인 일백이십만석의감소를 초래하게 될터이라하며 금후 맥작발육에 적당한 천후가 계속하더래도 상할즉약륙십여만석의 감소는 예상게 된다한다 그래서 농가의 대부분은조숙성(早熟性)의 맥종을재래종에 찬수하고잇다하며 도당국에서도 중강제초 숙호성비료、배수구등을 장려하는동시 회향이정은 경작지에는 재래종을하도록 각군을통하야 적극적으로활동을하고잇다는데 그결과가주목된다한다

多年要望이든 圖書館을設立

【新義州】 정조에도 잡시론의한부립도서관(府立圖書館)설립에관하야는 신의주부회 제오일에이르러 의원만장일치로 가결되여 래변도부터 개관하기로 결정되엿는데 장소는 현공회당(公會堂)이층으로 일반유지로부터 도서(圖書)기부를 밧게되엿다한다

赤色救援會事件

◇金道禮等三名被告에게 最高三年役을求刑

【咸興】 조선회사(朝鮮會社)의직공으로잇스면서 제일、이차(第一、二次)태로(太勞)사건에 모다관계되여 중요역할을하다가 입로(入露)한후에 해삼위에서조선적색구원운동(朝鮮赤色救援運動)에관한협의를하고 다시『레ー제』를 결정한이후 그『레ー제』를 흥남(興南)을 중심으로하여 김형덕(金亨德)과 리주팔(李柱八)등수명과함께 적색구원회결성위원회(赤色救援會結成委員會)를 조직활동하는일방 공청재건(共青再建)을 획책하다가 소화구년사월경에 흥남서(興南署)에 검거되엿든 조선적색구원회 (일명 모플)김도례(金道禮)(三一)등삼명에관한 공판은이십육일 오전열시부터 함흥법원에서 진파사(陳)와 대정검사의입회로 개정되여 다음과가티최고삼년의 구형이잇섯는데 언도는 오는이십팔일로정하고 폐정하엿다

金道禮三年 金亨德一年半 李柱八一年

阪神消費組合 第六回定期總會

【尼崎】 지난 이월이십이일오후칠시에 니긔시서본정 니긔신용조합(尼崎市西本町尼崎信用組合)에서 판신소비조합 제륙회정기총회를 의장홍창규(洪昌圭)씨부의장 리근호(李根鎬)씨 주재로 순서대로 대회가 진행되엿는데 각우의단체의 축문축사를 랑독하고 심사위원보고에잇서서 본조합의 조합원이 사백오십명인데 금번대회에 조합원십명에 대의원일명식으로한바 이번참석한 대의원이 사십오명이 출석하엿슴으로 총회는 성립되엿다 역원선거에 들어가 신역원를 선거한다

◇新任役員 理事長 金敏中 監査 洪昌奎 李根鎬 全道律 理事 車甲俊 鄭昌根 金炳善 趙鶴元 安秉云 林炳助 金尙範 鄭文宗 金成達 黃毛侍 朴世日 姜相準 徐正潮 徐寶 普 孫漢鎬 李順雨 崔銀濤 朴材範 金鮮燮 李秉 朴晉翻

本報支局主催 伊川珠算競技

【伊川】 강원도이천군은 정치로 발전됨으로 각관공서에의 봉적자와 및 상업자들의 주산에대한 능률을 조장코자 다음과가티 본보이천지국주최로 이천군제일회 주산경기대회를 개최하기로한바 이천군에서 처음되는사업이니만치 자못성황을 예고하다하며 다수참가를 바란다고한다。

一、時日 三月二十一日午後二時부터
一、場所 伊川公普校敎室
一、申込金 一人當二十錢（要申請時添付）
一、申込所 本報伊川支局
一、申込期 三月十五日正午까지

簡易學校設立費로 壹千五百圓喜捨

保寧李相玉氏美擧

【大川】 보령군 남포면 월전리 (保寧郡藍浦面月田里)리상옥(李相玉)(三?)씨는 본래부터 자선심이만허 리근동에서는 씨의 칭송이 떠대하든중 금반에는 월전리(月田里)양기리(陽基里)방면에서 웅천(熊川)남포(藍浦)공립보통학교에 통학하는 어린아동들이 거리가 너무나 먼관계로 극난할뿐아니라 번학교에 입학치못하고 배움의길을 일코 거리에 방황하는 학령아동들이만타는것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한바가되여 양기리와 월전리중앙에 간이학교설립비로 일천오백원을 솔선하여 기부하엿다는데 일반은 씨의 특지를 칭송함이 적지안타한다

有志懇談會를開催 地方發展策을討議

◇本報扶餘支局主催◇

본보부여지국에서는 지난십오일오후칠시부터 당지조선료리점 영월관(迎月館)에서 군내유지이십여인을 초대하야 현하사회시설급교육에 관련한제반문제에대한 관상문의와의견교환하고저 유지간담회를개최하고 본보부여지국장 박인규(朴仁圭)군의개회사와 래빈측의대표로 부여면장 윤정대(尹正大)씨의 축사가잇슨후 아래와가티 제반현안문제를토의한후 본보지국에서 략소한주찬을나워가며 그리업는포부와 의견을교환하고 화긔애애한가운대 동야십일시에폐회하엿다

參席者

◇來賓側 元晋鉉(扶餘郡守) 小林重好(扶餘警察署長) 淺井啓二(郡內務主任) 尹正大(扶餘面長) 宅山近善(扶餘普校長) 金相琨(有志) 金大植(有志) 鄭在慶(金組理事) 金鶴斗(有志) 李寶範(有志) 堀川富三郞(有志) 谷久保(有志) 文拳燮(有志)

◇主催側 (本報支局長)朴仁圭 (總務記者)李寅鎬 (記者)洪翰杓 (顧問)俞鎭濬 (顧問)馬漢賓

◇主催側 前略── 우리부여에는 사회시설과교육에관한 제반문제가 만흠으로 오늘밤이자리에서 제현이 평소에가진바 마음의포부를흉금업시 말슴하여주시기를 바람니다 이제한문제식 고견을피력하여주시시요

一、九龍平野金川改修工事問題

主催側 본문제는소화이변도에긔획조직활동하여온일반이다 ─아는바이나 그후경과상황이여하합니가

小林署長 본공사는 루년계속적성질을띄웟고 또한 파다한공사비를 요하게됨으로 실현이어렵습니다

元郡守 본문제는 임이사회여론화하여서 본군뿐만국한된 문제가아니라 본도의 대사업으로 인증케되여 총독부당국에서도 본공사를중대시하고 루차예산까지세웟스나 대장성당국의 삭제를당하고 말엇습니다 그런고로 총독부당국은 이려한 계속사업을 먼저착수한곳이 전조선각처에 수다함으로 그사업이 종료하게되면 아마금천개수공사도 해결되겟지요

堀田氏 본문제에대하야 과거본인도 진정인의일분자로 상부하엿슬때에 지금군수영감의말슴과 동일한성질이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인사의 운동여하에잇서서 삼년후에될지 이년후에될지 몰으는것이니가 무엇보다도 지방인사의 활동여하에 달렷다고봄니다

李寶範氏 올습니다 본문제는 지방인사의 단체적활동력이 부족하다고 볼수바게업지요 변전강경천(江界川)개수공사를 미루어볼지라도 본군보다 수년후에 운동하엿스나 전군이일치단결하야 맹열활동한결과 먼저공사를착수하것이안닙닛가 요컨대 우리부여는 지방인사의열성이 부족합니다 군민이총동원하야 본문제를 해결할때까지 매진해야되겟슴니다

元郡守 그말이올슴니다 본인은 본군에부임한제가 오래지안흠으로 자세히는 알수업스나 일반군민의 머리에 이문제가 철저적으로 파급되지안흔것갓슴듸다

小林署長 본문제를 해결하라면 무엇보다도 금전문제인데 먼저몽리구역내의 각지주들의물질적희생이 필요하다고봄니다

一、百濟舊都紀念事業問題

主催側 현재의백제관(博物分館)으로 승격하고 내용을충실케하여보자는 문제입니다

元郡守 본문제는 과반상도시에도 지사의 말슴이 잇섯는데 본문제는 불가능성을 가지고잇는것이 아니라 가능성이잇고 말아서 불원한장래에 실현될희망이 잇슨측 먼저 내용이 충실해야 됩니다

淺井主任 본문제는 무엇보다도 내용이 충실만되면 자연승격이되는것이니 내용이 충실될때까지 활동해야합니다

一、江景扶餘間道路直通問題

主催側 본문제는 부여면 능산리(陵山里)염창리(鹽倉里)를통하야 석성을 경유하야 강경까지 일이는도로망입니다

元郡守 본도로는 과반 도의지희열(池喜烈)씨와 당회합일도잇섯습니다 금춘에 일차 지도의(池道議)와가티 실지답사한후에 결정하겟습니다

一、自動車賃金減下問題

主催側 본문제는 강경(江景)론산(論山)부여(扶餘)간과 공주(公州)부여(扶餘)간 자동차임금은 일반이 다ー빗사다는말이잇는데 어떠케 생각하십니가

谷久保氏 이사람도 평소 느겨온문제입니다 사실현재임금은 비쌉니다 우리는 이에대하야 철저히감하운동을 해야됩니다

馬漢賓氏 올습니다 우리부여는 작추조선팔경에 당선됨으로부터 탐승객이 격증하는현상인데 자동차임금이 고가임으로 탐승객이 감소됨은 사실인데 이와가티되면 부여발전상 큰영향이잇스니 고려할점입니다

小林署長 자동차임금은 리수와 래왕회수를 따라서 제정하는것임으로 감하운동은 어려울것갓슴니다

谷久保氏 그러타할지라도 타선로보다는 사실에잇서서 빗싼즉 부여발전상으로보아 도당국에일차진정할필요가잇지안흔가 합니다

一、朝鮮八景當選記念碑問題

淺井主任 본기념비는 총독의액자가 아즉오지안햇슴으로건립치못한것입니다 경비는 약삼사백원들겟습니다

一、扶蘇山ー阜蘭寺間道路改修問題

尹正大氏 본면에서도 이문제에대하야 착안하고 총『콩크리ー트』로 전부개수하려고 도지방비를운동중입니다 아마금춘에실현되겟지요

一、水泳場其他遊覽設備問題

主催側 팔경중하나로당선됨으로부터 그면목이일신되여야할부여가 그후하등의시설이업스니 퍽유감으로생각합니다。따라서 탐승객에게대하야 더욱이 미안합니다

鄭在慶氏 본문제는 고적명승을가지고잇는부여로서 제일요긴한문제입니다 고란사로부터 규암수북정사이에 수영장을설비하고 『보ー트』(貸)를준비하야 고란사와 수북정에다두고 일반탐승객에게 수용토록하는것이 퍽조흔문제입니다

淺井主任 조흔문제이올시다 그러나 고적보존회로서는 그만한 예산이 업슴으로 마음뿐잇스나 실현키곤난합니다 다만지방유지의후원을바람니다

一、扶餘土産物準備販賣問題

淺井主任 종래로부터는 토산물이업슴으로 탐승객에게 대하야『써ー비스』업는을 늣기고 잇섯습니다 이에 일본내지각처에서 이십여종의토산물을참고로 수집하야 우리부여에적합한토록 방금고안중임으로 불원간시장에서 판매하게되겟습니다

一、林川鷲岩間道路昇格問題

元郡守 본도로는 본인도평소생각하여오든문제입니다 일차실지조사한후에 개수할것은 개수하고 정리한후 승격에노력하겟습니다

一、扶餘普校新築及修繕問題

主催側 부여보통학교는 재작변가을에 교사를개축하기로 면민대회를 개최한후 긔성회를조직활동한다함은 당시지상에도보도된바어니와 그후당초의예산액일만원에 또구천오백원을초과하야 현재할학급을 신축하고 또 현재부지와、운동장으로는 도저히 아동을수용할수업슴으로는 도 ... 이전한다는말이잇는데 그후경과상황이 어떠한지 말슴하여주십시요

片山校長 본학교문제로하여 과거에 면민대회를 이차나 개최하엿고 긔성위원회를 십수차 학부형회를오륙차 학부위원회를 수삼차개최하고 군당국학교당국과 면민학부형이일치단결하여 맹렬활동한결과그성적이 매우 량호하엿습니다 그리하여 불원간 학교비에납입금액을 완납케 되엿습니다 이는 오로지 일반면민과 학부형의 열성입니다 그리고부지문제는 학교당국과 긔성위원회에서는 일체간섭치 안키로하고 도당국에 일임하기로 결의하엿슴으로 우리가 알배안닙니다

一、窺岩普校學級延長及簡易學校充實問題

主催側 규암보교는 현재삼학급을육학급으로하고 또신리간이학교를 충실키위하야 충비사친회를개최하야 예산을 세우고작학부터 긔성회를 조직하야활동중그성적이 량호하야 불원간 군학교비에 납입금을 완납하게되엿단말을 들엇습니다

一、言論機關補助機關設立

主催側 종래우리지방의관공서와 언론긔관이 심히 간격이 잇섯습니다 언론긔관은 지방발전을 위하야 보필의 책임이 잇는만큼 과거의 오해를 타파하고 좀더 긴밀한 련락을 취하야 상부상조하여나아갓스면 합니다 그리하야 지방발전을 위하야 서로 리용하여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淺井內務 이사람은 평소 언론긔관에 대하야 만흔 관심을 가지고잇섯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긔관을 쥐고잇는분중에 이사람의 긔대하고잇는바와는 어그러지는바가 만슴듸다 요컨대 너머나 관공서에 대하여 공격을 하지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관공서를 방문하야 피차 련락을 취하여주기를 바랍니다。

金相琨氏 이사람이 언론긔관에 구하는바는 지방에 조흔 일이 잇스면 될수록 추앙하고 나즌일이 잇스면 될수록 숨겨주고 만약 언론의 입장으로 보아 부득이 보도해야될 사건은 좀더 신중히 조사하야 공정한 태도로 공평되히 나아가주엇스면 조켓습니다。

主催側 오늘밤오래시간을 괴롭혀드리고 지방발전과 지국발전상에잇서서 고귀한의견과 편달을 주심이자리에서 밧은바 우리부여지방에 긴요한문제에관하야 언론으로써 만분일이라도 보필코저합니다 장래더욱 끈칠업는 애호와지도를바라고저합니다

銀尺公立普校 學級增設運動 陳情委員上道

【尙州】 지난이십사일에 상주군은척면(銀尺面)공립보통학교강당에서 그면내유지급 면장 학무위원 학교비평의원의 면민다수가 회합하야 여러가지 토의를한 결과 금변도에는 긔어코 실현키로 만장일치가결한후 도당국에 진정하기로하야 아래의삼씨를 선정하고 무사히상부하엿는바 원래 그학교는 창설시부터 사학급제로하엿든바 소화칠년도의 대흉변으로 일학년이감어서 이제 몃해동안을 복식으로하여왓스나 금년도는 입학아동이 늘어도 백명이상이 넘을듯 하야 종래의복식그대로는 도저히 교실이 좁아서 교수할수가업다는것이라하며 교실짓기라는 전부임전허 설비가되야잇서서 다만 교원한인의 인건비만잇으면 금변도에는 꼭실현되리라고 밋고상도하리라한다

◇陳情委員=成宜秀 崔顯九 南潤元

더문업는거짓말！

流言者를嚴重取調中

”忠犬匪見”說의넌센쓰劇

【定州】 정주군방에는 이언면(伊彦面)에 명견(名犬)이 주인치의아이를 구하엿다는 사실무근한 류언비어가 항간에선포되고잇슴으로 필경은 경찰의 활동까지보게한사실이잇섯다ー이에 그자세한것을 탐문하건데 정주군이언면에사는 리도성(李道成)(二?)이라는사람은 자식이 업슴으로 윤씨(尹氏)라는 첩을어더두엇는데 그후에 본처인선녀가 남아를 출산하엿슴으로 첩윤씨는 항상 본처에대한 시기심을 품고잇든중에 작변칠월 십이일이소화일에 본처가 아이를 집에두고 근처잔치집에 간틈을타서 첩윤씨는 아이를 안어다가 뒷동산에 버린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대소동을 일으켯스나 종시종적을 몰으고 잇든중에 집에서 길르든 개가 다음날인 이십삼일 아침에 나타나서 본처의 치마끈을 물고잡어다님으로 이상히생각하고 딸어가서본즉 어린아이는 개가 몸을싸고잇섯든관계로 눈이말동말동하여 살어잇슴으로 첩은 경찰에잡히고 개는 안방에서 호강을 하고 잇다는것이엿다 이말이 나타나자 정주부근에서는 그명견(名犬)을 구경하라고 물끌틋하고 별별 유언비어가 떠돌고잇스나 정주경찰에서는 첩윤씨라는녀자는 체포한일도 업스며 그런사실이 정주관내에는 업슴으로 자세한것을 조사하여보건데 정주성내의 임모(任某)등 몃몃사람을 조이 옛말삼한것이 허전된것으로 정주서에서는 지난 이십오일에 류언비어를 살포하엿다고 ... 인정하는 남녀수명을 소환하여 ... 할수업다한다

山間郡部의災民 救急無誠을論難

平南道會議席上에서

【平壤】 녕원(寧遠)선출 백룡호(白龍鎬)의원은 녕원군내에는 련삼변냉해(冷害)로인하여 이만여명 궁민은 사선에서 방황하게되여 시급한구제를 요구하고잇스나 군재정으로서는 도저히구제할길이업스므로 도당국에 구급을요구햇스나 예산이 업서할수업다는답변이잇섯다 여기에흥분된 백의원은 번번히 이런요구를하게되는 자신으로서도 민망하나 목전의 위급한경우이니 엇지할수업서 간원을햇는데 거절을하고마니 그러면 도당국으로서는 녕원군일대 수천호의궁민을 만주국(滿洲國)에 이민을 식히든지 그러치안흐면 함남도(咸鏡南道)에편입하여 인삼(人蔘)을재배를식히든지 처치하여 녕원선출의원으로서 이러한 귀치안흔 요구를안토록 하라고 역습하여 장내의공긔는 극도로긴장식혓스나 결국은 아모런해결도 짓지못햇다 이러한 현상은 녕원이외에도 성천(成川) 개천(价川) 맹산(孟山) 양덕(陽德)등 사개군내 약삼만명의 궁민이 꼭가튼리경에잇서 각군선출의원들은 여러가지로 급속한구제를 요구하엿다한다

延安溫泉에怪盜

一夜間에兩處를襲擊하야 現金四十餘圓竊取

【延安溫泉】 지난 이십사일오전 두시경에 황해도 연안온천(延安溫泉)에서는 괴한이 출현하야 양처에서 현금사십여원을 절취한사실이잇다는대 이제 그내용을 들으면 전긔 온천 유상현(尹相憲)상점에침입하야 현금십여원을 너어둔 금고를 절취하여다가 금고를깨트리고 금전만 가저가고 동일에 도박웅식(朴應植)상점에 침입하야 현금십여원을 절취도주하엿는대 이급보를바든 소관온천경찰주재소에서는 방금범인수사에 대활동이라한다

移住同胞激增으로 民會區域을擴張

北滿穆陵縣下에서

【[illegible]】 북만목릉현일대(北滿穆陵縣一帶)에는 만주사변이후에동포농민의 비약적증가를 보이고잇서서 어에민회(民會)의 관할구역(管轄區域)을 확장시키기위하야 하성자(下城子)에 신설민회(新設民會)설치를 결정하고 팔면통(八面通)과 리수진(梨樹鎭)량민회를 협동시키고저 지난십구일오전십시부터 리수진민회(梨樹鎭民會)에서 각평의원을 위시하야 협동전체대회(協同全體大會)를 개최하엿든것이라는데 당일의 결의항목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決議事項
一、昭和十一年度豫算編成의件
一、學校經營案確立의件
一、管內區域設置의件
一、農場新設과指導方法協定의件
一、自警團維持方法協定의件
一、評議員選擧規則通告의件
一、其他

主要道路舖裝

【平壤】 평양부에서는 『금변중에 대신공업에서 서평양역까지대동여인하루『가루개』어테밋까지 포장을 하기로되여 조사를 개시햇든데 이것이 실시되는때에는 서평양일대의 도로도 현대식화 하는터이라한다

自轉車탄靑年 橋下에落死

【寧邊】 변동국사령의참사가잇다 직도 긔억이새로운데 지난 이십사일에 또변동군 변단시(邊市)변단교(邊端橋)상에서 창성군창성면용성동(昌城郡昌城面龍城洞) 최봉국(崔鳳國)과 초산군동면귀룡동(楚山郡東面龜龍洞) 김영렬(金永烈)이란 자전거와 충돌되여 초산김영렬의 심부름군(姓名未詳)은 사메ー돌이나되는 교하에 떠러저 무참하게도 즉사하엿다한다

가루개借地人結束 地料減下를運動

【平壤】 평양부내인흥리(仁興里)속칭『가루개』는 부내빈정(濱町)천상하(千象河)씨의 소유이든바 작변여름부터 내지인이천씨에게서 평만여원을 주고 매수하여 일본생활자의 주택을 건축코저 햇스나 공작이임의를 안정을엇게햇다 주민들은 천씨가 도로맛게되엿섯는데 악지주들은 차지료를올리어 지주와 차가인사이에 분쟁이끗치지안는이때에 천씨는백여호 주민에게 차지료를 칠전내지 팔전식을 나리여 생활의 안정을엇게햇다 주민들은 천씨의 미거를 찬하하여 칠백여원을 거출하여 송덕비를 건설햇다 지가의 폭등과가티 고공중에잇는 차지인일동은 이그회에 차지인련합회와 공동전선을취하여 전면적으로 차지료감하운동을 일으키기로 되엿다한다

南大川治水工事促進 厚昌面民이陳情

五百戶住民死活問題

【咸興】 함남도의 금변도 예산편성의결과 북청군남대천치수공사중(北靑南大川治水)의 요청구역인하류 삼백『메ー돌』의 일부와 지류 종포천(鍾浦川)의 축제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중지할수박게 업다는데 이손문제는 치수공사만 중지되면장래에 동하천의 범람으로 수백호의 토지가 황무지화되고말것임으로 실로동지방 주민에게는 사활문제라고 궐긔하여 지난이십오일부로 대표 김종을(金宗乙)외 삼명이 련서로긔어히 축제공사시행을 진정하엿다한다

拳銃가진滿人强盜 同胞二名을傷害

…金品을强奪逃走…

【奉天】 지난이십삼일밤여들시경평북에 원적을두고 시외북릉동보자(北陵堡子)에서 잡화소매상을 경영하고잇는 황창엽(黃昌燁)씨의집에 권총을 소지한만인강도두명이 달려들어 주인을협박하고 금품을 강요한바 전긔황씨는 이에응치안코 저항함으로 만인강도는 권총을발사하야 죽이황씨는 좌대퇴부(左大腿部)에 관통총상을밧고 황씨의 삼남금춘(今春)군도오른편슬관절(膝關節)에 관통총상의중상을 입히고 현금이원사십전을 강탈도주하엿다한다 급보를 바든 령사관경찰서에서는 현장으로달려갓스나 범인은 체포치못하엿다하며 전긔강도들은 소지하엿든권총(모젤뿌로닝일호)한개를버리고 다라낫스며 피해자두사람은 동광병원(同光病院)에 운반하야 응급치료를 가한바 생명에는 별관계가업스리라한다

梁山郡內各學校 一齊學級增設促進

有志의積極努力要望

【梁山】 경상남도량산군내에는각면에일교식의 공립보통학교와 군내에이교의 간이학교가잇서서소위일면일교제는 완성되엿다하나 육학급이상학교는 이교에지내지못하고 그외에는 삼사학급이하의현상으로 해마다늘어가는 학령아동의 이할밧게는 수용치못함으로 입학시에는 막대한수험을 보고는 그만큰눈물을 먹음고도라가는자의 현상은 도저히참아볼수업슴으로 군내각학교통하야 학급증가운동이 열렬한중 군당국에서도 그필요를늣겨서 그준비시작을한다는데 지방인사의 적극적운동이 더욱필요하다한다

車洪淳氏敎育熱

【寶城】 보성군웅치공립보통학교훈도차홍순(熊峙公立普通學校訓導車洪淳)씨는 본교가사변제이학급으로서 복식교수를 하는관계상 교수와교무가 복잡다번한중에도 불구하고 그부근에 취학치못하고잇는 무산아동(남녀)팔십여명을 동교에소집하야 작변십이월일일부터 매일방과후 이삼시간식 한글 산술등에 대하야 교수를계속하고 문맹퇴치에 노력한결과 성적이매우 량호함으로 씨의교육열에 대하야 일반의칭송이자자하다한다

毗米모고색기꼬아 夜學校를經營해

藻山里住民의敎育熱

【鎭川】 고령면 조산리(藻山里)주민일동은 소화오변도부터 집집마다 조석으로 한줌쌀을모아저금(貯金)하는 반면에 집마다색기 석동식 제승(製繩)저금한돈 오백십원으로 매평에 오십전식 하는 논(畓)천여평을 매입하야 그작료로 야학도 경영하고 또는 빈한한 학생들의월사금도 지불한다고 하는바 이저금계의중심 인물은장의강(張義綱)장홍범(張洪範)장광렬(張光烈)등이라하며 또는 그린접지인 무학리(武鶴里)에서도 청년들이 단합하야 지도자 문교환(文敎煥)문창빈(文昌斌)두사람을선거하야 매일밤마다 오개소에서 가마스를 만들어온다는바 그대금이 이백여원으로 로지를금년에 매입하엿다는바 일반은 이량리저금계에 대하야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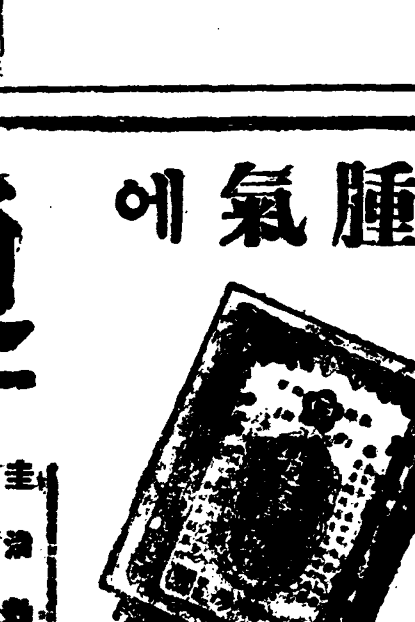
伊川 第一回珠算競技大會

▲時日 三月二十一日午後二時
▲場所 伊川公普校
◇申込金 一人當二十錢
◇主催 朝鮮日報社伊川支局

開城 新春漫談의밤

▲時日 二月二十九日午後七時半
▲場所 中央會館
◇主催 開城北部敎會宣傳敎會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開城女子敎育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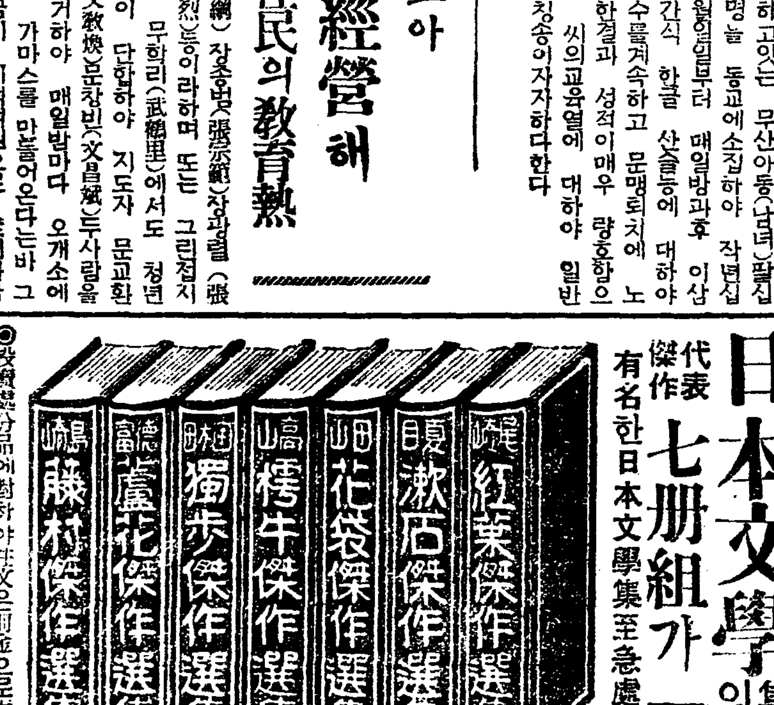
腫氣에 趙膏藥



定價 五錢·十錢·二十錢

發賣元 京城府鍾路 天一藥房
本舖 天一靈神丸本舖 天一藥房

殘本整理를爲하야破天荒的投賣提供
日本文學集의大亂賣
代表傑作 有名한日本文學集至急處分
七冊組가 一圓廿錢 (送料廿六錢)
七冊全部 注文者에限大投賣



●金色夜叉。多情多恨。二人妻。不言不語。其他先生の名作
●吾輩は猫である。坊ちやん。草枕。等
●出世作蒲團、田舍敎師、重右衛門の最後。其他
●瀧口入道。わが袖の記。平家物語。其他
●天才詩人獨步の代表作、武藏野。酒中日記。其他
●不如歸、自然と人生、みみずのたはこと。其他數篇の大作揃
●一讀、其名を世界的に遺せし先生の時代の珠玉の如き名作

◎投賣處分에對하야注文은前金으로振替又는小爲替로보냄을
◎不得已한때에는代金引換으로申込하면七冊組壹圓六十五錢에付送
朝鮮日報讀者라記入申込할事
大景品(世界文學集)全二冊無代進呈
振替東京一五〇四番 東京·麴町區九段三ノ三 積文社殘本部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副人氣生產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性器强大靈藥

二週三圓 四週五圓半 六週八圓
滿洲國安東縣 安東郵局私書函第六號 (中奧街四〇) 振替口座京城二三〇三八番 滿蒙特產物商會

國際新砂糖協定
目下準備機運擡頭

차드보른協定廢棄後 이미半年을 經하얏는데 英國政府의 이니시어티-브에 依하야 新國際砂糖協定의 準備가 着着進行되고잇다。

차드보른協定은 世界價格의回復에 失敗하야 何等의 實益을 너무치못하얏다。世界需要를 너무 樂觀的으로 보것도 失敗의 一因이라고보이나 主要한 原因은 生産統制가 世界産糖國全部를 包含치안흔 點에잇는듯하다。그런데 차드보른協定의 失敗에 依한 悲觀的前途觀과 長期에 亘한 市勢의 低落은 새로운 國際協定을 成功케할 素地를 充分히 지어노앗다。此時에 際하야 砂糖市場의情勢를 概見하자。

×

차드보른協定은 一九三五年九月一日로써 廢棄되엇는데 國際砂糖市場의 情勢는 將來年末에 至하기까지 上向의 一途를 거럿다 그原因으로 (一)砂糖需給의 顯著한好轉, (二)伊에紛爭에 伴한 國際關係의 緊迫(三)新國際砂糖統制計劃의 準備에 期할수잇다。一九三六年에 入하는同時에 糖價는 逆轉하게되엇는바, 需給의 好轉이라는 根本情勢는 依然 市場에 顯著한 好影響을 及하고잇는듯하다

國際砂糖統計家로써 有名한 윌의 미코分博士의 調査에 依하면 一九三四ー三五年度의 世界砂糖生産高는 僅僅二千四百九十萬噸으로 前年度의 二千五百五十萬噸에 比하야 六十萬噸減, 一九三三ー三四年度以來의 少額을 示하고잇다。如何한生産減少는 甘蔗糖의生産減少에 基하다 即過去二年度를 通하야 世界甘蔗糖生産高는 二百七十萬噸의 生産減으로되어잇다

一方一九三四ー三五年度의世界砂糖消費高는 總額二千五百六十萬噸에 達하야 前年度의 二千五百萬噸에 比하면 六十萬噸의 增加를 示하고잇다 이리하야 一九三四ー三五年度의 世界消費는 世界生産을 突破하기 七十三萬三千噸에 達하야 그만지 在荷의 減少를 본터이다

×

需給의 好轉 또 國際協調의 前途를 好轉케하얏다 一九三五年七月末에 公表된 英國政府의 白書는 世界協調가 必要한 所以를 强調하야

「砂糖生産業者는 世界市場의 需給을 調整하는 國際協定의 手段에 依하야서만 糖業을 經濟的 基礎上에 置할수잇다고 確信한다」

라고 述하얏는데 八月初에는 자바를 除한 舊차드보른協定參加國인 큐바、獨逸、체코、폴란드、和蘭、白耳義、페루의代表가 부루셀에 集合하야 新國際砂糖協定에 到達키爲한 努力을 有効且 容易케 하기爲하야 國際砂糖委員會를 形成하얏다。新委員會는 英國에 委任하얏다

英國當業者도 亦是 新協定에 對하야 無關心할수업섯다 即 昨年九月에는 英國本國政府와 帝國內産糖諸國과의 間에 交涉이 展開되엇다。그結果는 何等發表되지 안헛스나 大體方面에 流布되고잇는바에 依하면 英國에는 英帝國內諸國을 通하야 過去의 最大生産年의七%만 生産을 制限하려는 計畫이잇다고 傳한다。

特히 今年에入하면서 國際砂糖會議의 氣運은 漸次濃厚하여저、國際砂糖委員會는 最先一月十三日부루셀에 會合을 開催하얏다。何等의 結果가 發表되지 안헛스나 英國의 이니시어티-브에 依하야 準備가 進捗되는 環境에는 一致하려는것을 闡明한 一決議를 採擇하얏다한다。

또 二月에 入하면서 英國政府當事者가 헤그에서 會見을 要求하야 國際會議의 前途에 關하야 種種懇談을 行하고잇는바 漸次進行되고 잇다고 볼수잇다。그런데 國際會議의 開催에 對하야 가장 悲觀되고잇는것은 자바의 態度이다。자바는 昨秋의國際砂糖委員會에도 參加치안코 그態度는 顯著히 消極的이엇다。그러나 자바에關하야서도 悲觀할必要가 업다는見解도 생기게되엇다 자바代表이든 웅거·양博士와 如한 일수이 부루셀會議의 자바參加를 强調하엿슬뿐아니라 자바糖의 最大販路인 印度에 對한 關心을 有하든 자바는 國際砂糖生産 統制에 代表이든 新販路에 入하얏다 即 一月三十一日 砂糖統制에 關한 一條例를 可決하야 니스(糖田砂糖 販賣組合)의 存續期間을 無期延長하야 自由販賣에 對하야 許可制度를 採用하고 그以後의 砂糖生産統制期限을 賦與하기로 되엇다。이외同時에 實施된 자바砂糖工業改組案에 依하면 新砂糖工場의 建設은 禁止되는同時에 在荷의 集積은 防止되여 자바砂糖在荷는 一九三七年度製糖工場은 一九三一年의 製糖能力과 當該年度에 甘蔗作付과 生産統制의 方法은 實로 顯著한 것이데 이는 자바의 最高可能生産量보다 十割이나 만키때문이다。그러나 各工場에 新許된生産은 老朽工場의 閉鎖를 命하고 또 競爭會社의 合併에 依하야 生産을 經濟的으로 할수잇다 如斯한 자바糖生産의 合理化는 자바糖에 世界市場에도 好影響을 及하려라고 觀測하고잇다 아니라 世界市場에 米國의 態度도 注目치안흘수업는것이다 米國은 全然關心치안흐나 現수입 對하야 國際會議에 對하야 內地生産及殖民地輸入에 嚴重한 統制를 行하고잇서 現今은國際會議의 熱心한 支持者로 看做하게되엇다

圓貨 暴落出現
近年初有의動搖!

二十六日의事件으로 內外經濟界에 波及한情勢는 大略다음과갓다 即圓爲替暴落、再開된綿絲、人絹等의 淸算市場이 平穩이엇스며 株式은對策未決로休會、期米當限解合으로 休會이엇다

米日爲替 大幅低落

【뉴욕二十六日發電通】二十六日의 米日爲替는 日英크로쓰不變에도 不拘하고 二十七仙의大幅低落으로 二十九弗臺가 깨어저 二十八弗九十仙에 止하고 午後五時半頃 一部에는 二十八弗八十五仙이라는 低落률나타냇다

【뉴욕二十六日發同盟】卄六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 賣二十八弗九十一仙으로 二十五仙低 買二十八弗八十八仙으로 二十六仙低

【뉴욕卄六日發同盟】卄六日의 뉴욕外國爲替市場은氣迷裡에 卄九弗四十仙으로 前日止價에比하야 十五仙低에 始한뒤 九弗臺가 깨어젓는데 午後三時에는 二十八弗九十仙으로되바 大引은 卄八弗九十一仙으로되엇다 이것은 前日의 止價에比하야 卄五仙低로 今年一月十九日以來의 低價이다

▲東京爲替 (二十七日)

對米 賣二十八弗八分七 買二十九弗 對英 賣一志一片十六分十五 買一志二片

▲大阪爲替 (二十七日)

對米 賣二十八弗八分七 買二十九弗 對英 賣一志一片十六分十五 買一志二片

英日爲替 崩落出現

【倫敦二十六日發同盟】二十六日倫敦外國爲替市場의 英日爲替는 銀行賣로 一志一片三十二分이엇는데 前日에比하야 十六分一片低 同習레ー트一志一片十六分十五로 六十四分五片低를 나타내엇는데 모두 一志二片臺가 깨여저 昨年十一月以來의低價로 떠러젓다

英米市場에서 日本公社債急落
昨年四月後新低價

▲뉴욕

【뉴욕二十六日發電通】二十六日의 뉴욕米貨日本公債市勢는 入電關係上 顯著한 低落을 보혀 一時 二弗內外低에 始하고 그뒤는 安定氣味로 큰 變化가 업섯다 그러나 形勢는 軟勢이 繼續하야 結局 六分半利付公債는 三弗低의 九十五弗로 五分半利는 二弗低의 八十四弗四分一에 止하엿다 地方債及 社債類中에도 橫濱市場의 三弗八分三低(八十四弗八分一)이 顯著히 떠러지고 其他는 二弗內外低가 만흔바 宇治電은 겨우 四分一低에 止하엿다

【뉴욕二十六日發同盟】廿六日뉴욕의 日本公債取引은 衝動을바더 政府公債六分半은 寄付가스지못하고 五分半은 二弗四分의暴落하야 八十四弗에 寄付한뒤 多少反撥하야 結局八十四弗四分一로 止하엿고 六分半利附公債는 前日보다 三弗低의 九十五弗에 止하엿는데 이것은昨年四月以來의 低價이다 其他의公社債는 六分利橫濱市債의 三弗八分三低를비롯하야 大槪一弗低이다

▲론돈

【론돈卄六日發電通】倫敦取引所의 英貨日本公社債市勢는 二十六日午前中 警戒賣를 二磅半乃至二磅四分三이 急落하엿다가 午後에그形勢가 緩和되야 反撥의氣味가잇서서 結局二磅乃至一磅四分의 一安程度로 止하엿다

【倫敦二十六日發同盟】二十六日의 倫敦株式市場의 日本政府英貨公債는 五分半 利附公債八十三磅半으로 昨日보다 一磅四分三低를보힌것을 비롯하야 其他의公債는 모다一磅가 急落하고 社債類도 一磅半乃至二磅四分一低를 보혓스며 政府公債五分半利의 今日市勢는 昨年三月以來의低價이엇다

銀行營業開始

【東京電話同盟】日本銀行을 비롯하야 三井、三菱、第一、安田、川崎、勸銀、興銀其他의 各銀行은 本支店이 모두 二十七日에 平常과가티 營業을 開始하엿는데 모두 平穩東京手形交換所도 午前十一時 業務開始키로 決定하엿다

京城各銀行도 平常대로營業

朝鮮內地元銀行에서는 日本內地銀行의 休業問題를 傳하고 二十六日 各行首腦者가 對策을協議한結果 日本內地에 追隨키로決定하얏다 從하야 東西兩組銀共히 廿七日開行前에 平常대로開行決定하얏슴으로 朝鮮內各行共히 營業키로되엇다

東京手形交換所
廿七日부터再開

【東京】東京手形交換所緊急理事會는 二十七日 午前八時부터열고 前日 臨時休止하엿든手形交換을 廿七日부터平常時대로 再開할決定하엿다

金融界는平穩
津島大藏次官談

【東京電話電通】日銀의報告를 듯드래도 各地가 모다平穩平靜하다고함으로 安堵의맘을갓는다 手形交換도 今日은 開始한다고하며 爲替도最近의報告로는 大體小康狀態로 不動하는모양임으로 輸出은 될수잇는데까지中止하도록하고 輸入도大略警戒하는모양임으로 보며 따라서 大藏省으로서도 그適當한措置할모양임으로 지금 積極的으로 어떠케한다는것이업다

紐育生糸도暴落
三仙乃至五仙半低

【뉴욕二十六日發電通】二十六日의 뉴욕生絲定期市場은 日本側의 輸入側의 警戒賣迫과 實需仕手側의 防戰買出에 大波瀾을 나타내여 橫濱市場의 臨時休場으로 指標를일코 値動은亂暴을呈하고 寄付는 二仙乃至二分一仙低로 急落하야 新低價를現出하고 다시二次를 거듭한바 最後에 又復急落하야 結局二仙半乃至五仙低의 暴落이엇다

【뉴욕二十六日發同盟】二十六日의 뉴욕定期生絲市場은 市況이 活潑를 呈하고 市勢도 大浮動으로 急反落하엿다 그래서 止價는 前日에比하야 三仙乃至五仙半低로 昨年八月以來의 新低로 陷落하엿다

事件前과比較한
◇……商況一覽表

	二十七日	二十五日	比較
倫敦金塊	一四一志〇片二分一	二十五日入電 〇片二分一	比較 〇片二分一高
米日爲替	二十八弗九十仙	二十二仙低	
英米爲替	四弗九十九仙十六分三	十六分十一低	
朝銀建價			
對米	二十八弗八分七	十六分三引下	
對英	一志二片	不變	
對佛	四法三五산티음	一산티음引下	
對上海	一〇六圓	一圓引下	
對滿	一〇〇圓	不變	
金價(京城市中)	賣 一三・〇〇 買 一三・〇〇	一三・一〇 一二・九〇	二〇高 一〇高

	廿七日前寄	廿五日後引	比較
株式(朝取市場 短期東新)	―	一六〇七〇	―
期米(朝取市場 先限)	―	三一二四	―
綿絲(大阪先限)	一八七一〇	一八八一〇	一〇〇低
棉花(同)	五八三五	五八五〇	一五高
人絹(同)	五二八〇	五三七〇	九〇低
生絲(橫濱先限)	―	六九三〇〇	―
砂糖(大阪先限)	一一七七	―	―

"市中總混亂"
爲替市場은建價로써 正金統制에努力

【東京電話電通】廿七日 日本銀行을비롯하야 市中各銀行은 平常대로業務를繼續하고 또前日臨時停止하엿든 手形交換所도 再開하야 一般으로 平靜을保持한 다 一面, 取引所方面에서는 株式、米穀、綿絲、人絹、砂糖의商品取引所는 모두臨時休業을 하엿다 此等取引의再開에對하야는 可望이업스나 平穩하다 爲替市場도 「노미날」이나 正金銀行이 依然 對英一志二片 對米廿九弗의建價를 揭還하야 統制에努力하고 市中은 總賣人氣의混沌이나 對米卄八弗八分의七乃至十六分十三賣 卄九弗買의一手引을 低落을 示하고 또對英도一志二片十六分十五乃至八分七賣 一志二片唱이다

鰮粕統制問題 結局總督府에一任
一兩日中解決될豫定

鰮粕의 統制改訂問題는 旣報와가티 生産業者代表의 直賣要求와 三菱의獨占 繼續希望이 對峙되어 交涉이 決裂危機에 瀕하얏섯스나 總督府殖産局이 調停하야 兩者間을斡旋한結果 雙方이 讓步하고 二十六日會議에서 變方이 總督府에 解決을一任키로되엇슴으로 粕統制도 兩日中에 解決될豫定인바 統制期間은 三個年으로 短縮할모양이라한다

京城市中 金價暴騰
銀價는不變

二十七日의 京城市場金銀價는

	買價	賣價
純金	十三圓	十三圓三十錢
廿二金	十一圓五十錢	十二圓十錢
二十金	十圓五十錢	十一圓十錢
十八金	八圓五十錢	九圓十錢
白金	十三圓五十錢	十四圓
銀	十五錢	十九錢

으로 前日에比하야 金은賣價二十錢高 買價十錢高이오 二十二金、二十金、十八金各十錢高、白金은 買價五十錢高、賣價三十錢高이나 銀은不變이엇다。

朝銀爲替建價
二十七日에引下

朝銀의對外爲替建價는 日本內地爲替市場情勢에鑑하야 二十八弗八分七로 前日建價보다 八分一引下 對英은一志二片으로 不變 對中(上海)은 百六圓으로一圓引下이엇다

日銀券의 發行膨脹

【東京電話電通】二十七日 繰越의 日銀帳末에依하면 日米關係其他兌換券發行高는 모두激增하고 貸出은 正金의需要約六千萬圓 其他一般市中의 需要四、五千萬圓 其外大阪支店方面 三、四千萬圓의資金需要로結果 合計는 一億六千八百十萬一千圓의 急增을示하야 八億八千四百五十二萬九千圓으로 昨年末以來의 好記錄이다 一面兌換券發行高도 一億五千三百二十萬五千圓으로 增加하야 十四億三千九百四十一萬圓이 되엇슴으로 結局八百八十七萬五千圓이 늘어서二億六千五百六十一萬六千圓으로되엇다 二十七日中에도 日銀貸出은 二十六日로 거의同額의 增加인모양이며 따러서 兌換券發行高도 亦是急膨脹한모양이라고한다

中旬煙草賣渡

專賣局二月中旬의 製造煙草賣渡高는 合計百十七萬四千三百十一圓으로 各支局別은 ▲京城四十四萬一千二百九十二圓 ▲全州二十五萬八千九百六十九圓 ▲大邱二十三萬一千二百十八圓 ▲平壤二十四萬二千八百三十二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八分의增加이다

經濟界消息

◯中國經濟觀察團出發延期=京城商工會議所의 中國經濟視察團은 二十八日 出發豫定이더니 來月二日에出發을延期하엿다고

◯電話至急開設申請延期=遞信局에서는 三月二日부터 同十六日까지 十五日間 全朝鮮의電話交換取扱局所에서 一齊히電話至急開通의申請을 接受키로決定하엿든데 來年度의豫算은 아즉成立되지안햇슴으로 至急開通의豫定數는未定이라고

廿七日市場 株、米는休會
綿絲 棉花 人絹 砂糖은 大體平穩裡에再開

△東京=株式、期米杉森砂糖深川市場休會

△大阪=株式休會、期米休會綿絲棉花人絹砂糖은定刻立會

△福井人絹도立會

△橫濱生絲는休會

△朝鮮=朝鮮取引所의諸券、期米兩市場休會、各地期米休會以上과가튼데 再開된綿絲棉花、人絹、砂糖等各商況은大體에잇서 別波瀾이업시 平穩하얏다。

全國米取休會

【大阪商通電話】東京、名古屋、京都、熊本、下關各米穀取引所는二十七日도 繼續하야 前後場共히 休會인데 當限問題는 朝米協議中이다

東株市場은 依然混亂狀態

東株市場은 依然混亂狀態이다 大阪市場에서 綿絲、人絹等이 이미 立會를開始하야 意外로平靜한 市況임으로 人氣不安도 幾分解消되어 安心의感을與하고잇스나 再開後의 市況은相當히 諸株暴落豫想이다

長期總解合?

【東京電話電通】東株의 再開는 全然難測으로 長期二十五萬株의 大取組가 結局總解合되리라고

大株市場評議員會

【大阪電話電通】大株에서는 二十八日의 立會如何와 現在의長短兩淸算取引의 取組特히 二十六日納會豫定이든 長期當限의解決、休會에伴한善後處置에對하야 二十七日午後二時評議委員會에서協議키로되엇다

東亞證券情報

二十七日午前十一時半 東京平原取引店(期米委員長)으로부터 東亞證券社長에게 電話로의情報에 依하면如左하다

▲株는長短期共히解合至難(短期代引이만코 長期도안될것으로 一部分解合도어렵다)

▲米는大阪과가티 當限은二十五日後引으로解合形勢 氣配는混亂인데 자기생각으로는東新五圓乃至十圓低로본다

廿八、九日도 東株休會
重役會決定

【東京電話電通】東株에서는 二十七日 重役會에서 二十八、二十九兩日도 立會를繼續하야 臨時休會키로決定하얏다。各取引員組合에서는 午後委員會를開하고 當限受渡問題에對하야 그處理方法에對하야 그試案을가지고 硏究키로된一方 右二日間 休會中의 短期受渡는 繼續하야 行치안코 無日步로 하기로되엇다

再開後暴落?

【東京電話電通】立會停止第二日

朝鮮取引所 市場對策決定

朝鮮取引所에서는 二十六日深更까지 二十七日以後의 市場對策을 協議後 二十七日午前九時부터米豆部、證券部各商議員會를開催하고 善後措置에對하야 協議한結果

▲證券部 二十七日은 休會하고 長期當限解合問題와 二十八日以降의 立會問題는 日本內地의 取引所情勢를確認後 再協議決定함

▲米豆部 二十七日은 休會 二十八日以後의 立會問題는 日本內地取引所의 情勢를 보고 決定하리라 한다。

朝鮮內期米도 當限解合

大阪期米當限解合을좃고 朝鮮內各期米도 仁川을비롯하야 如左히 當限解合이잇섯다。

	圓錢 價格	石數
仁川	二八八〇	九、〇〇〇
釜山	二八八〇	四一、六〇〇
群山	二八七二	二二九、五〇〇
大邱	二八四〇	不明

朝取米豆部에서는 二十七日午後一時三十分 取引員組合總會를開하고 當限建玉九千石에 對하야 二十五日의 大引價로써 總解合談이 成立되어 午後二時十五分 當限價二十八圓八十錢을 付하얏다。

東米當限解合成立

【東京電話電通】東京米穀取引所는 二十七日同所樓上에서 第一

受渡停止、無日步

朝取證券部는 休會中의 受渡를 停止하고 無日步로하게 되엇다

朝取實物不解合

朝取實物市場은 二十七日以後의 取引問題에對하야 協議한結果解合은 行치안코 漸次受渡를行키로決定하얏다

大阪期米는 當限總解合
廿五日後引價로

【大阪電話商通】當島市場은 今朝九時부터 開催한 委員會의 結果 當限建玉 十四萬六千石은 二十五日 後場止價 三十圓八十四錢으로 總解合키로 決定하고 中先立會는 繼續休會키로 決定하얏는데 二十八日부터의 立會는 其後의 情勢를 보고 決定하리라 한다。

部取引員及取引員組合總會를 開하고 當限建玉의 二萬九千四百石은 二十五日의 大引價三十一圓二十二錢으로써 總解合이成立되엇다

東京人絹總解合

【東京電話商通】東京人絹取引所에서는 二十六日前場限 當限納會이든바 理事會의 結果棒値五十二圓十錢(二十五日大引價)으로 六千四百十枚의 總解合이 決定되엇다

名古屋米取總解合

【名古屋電話商通】名古屋取引所에서는 當限組高八千九百石을 擇價二十二圓七十四錢으로 總解合키로決定하얏다。

岡山米取總解合

【岡山電話商通】岡山米取에서는 委員會의結果 當限三十圓八十錢(最終價格)의 棒價로 一萬七千三百石의 總解合을 하기로 決定하얏다

正米氣配 二、三十錢低

仁川 群山 木浦 大邱의各正米取引은 休業이나 暗氣配는 二三十錢低唱이다

釜山反落

【釜山電話】換金處分數物二千五百叺程度入하얏스나 日本內地는 情勢推移를重視하고 沈默狀態이오 市中取引안코 僅히 物色買가散見되는程度이며唱은 二十錢反落을告하얏다

◇……過去圓爲替趨勢

年	月	弗	月	弗
大正四年	一月	[illegible]	二月	[illegible]
	三月	[illegible]	四月	[illegible]
	五月	[illegible]	六月	[illegible]
	七月	[illegible]	八月	[illegible]
	九月	[illegible]	十月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大正五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大正六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大正七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大正八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大正九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大正十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大正十一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大正十二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大正十三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大正十四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昭和一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昭和二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昭和三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昭和四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昭和五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昭和六年	一月~八月	[illegible]		
昭和七年	九月~十二月	[illegible]		
昭和八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昭和九年	一月~十二月	[illegible]		
昭和十年	一月~十月	[illegible]		

金融 廿七日

◆海外爲替◆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貨入價◆ [illegible]

穀物 廿七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廿七日

◆京城綿絲布市況◆ [illegible]
◆日本紡績株式◆ [illegible]
◆露西冲價◆ [illegible]
◆大連特產市況◆ [illegible]
◆滿洲高粱◆ [illegible]
◆鏡井船冲價◆ [illegible]

株式 廿七日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廿七日

◆大阪正米標準價◆ 日本米上 三・〇〇中 三・〇〇下 [illegible]
朝鮮米上 三・〇〇中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玄米 五六八〇七一 白米 [illegible] 朝鮮玄米 [illegible] 白米 [illegible] 台灣白米 [illegible]

商品 廿七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지카코期麥◆ [illegible]

金.銀.白金
德
代金引換取扱自由 文注方地 金先送料要
京城德力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京城府明治町

精米用石粉
藤井商會
平壤府船橋里 電話五九一番

玉蜀黍購入
五圓二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産業組合과 北鮮各産業組合에서 申込하시면 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